



感應篇
卷之二

八六
2476
2



卷之六
號 2476
卷 5-2

太上感應篇圖說卷之二目錄

刑官善報

范純仁

王旦

楊旬

錢若水

張慶

刑官惡報

梁統

周興

索元禮

張汝慶

李若水

楊鐸

歐陽遇

李元禮

史官善報

衛仲達

史官惡報

江陰二生

言官善報



林鎬

劉元昌

言官惡報

林機

王翰

杜肅

養民官善報

趙抃

姚思仁

王珣

張洪

曾櫻

楊詣

馬默

袁了凡

葉夢得

劉矩

祝乾壽

崔廷

養民官惡報

郭崇義

韋公幹

陳潔

宋昇

嚴延年

邵知府

張寶

李緒

梁緯

許棊

狄知縣

鄭清臣

黃同知

王通判

范純仁



范純仁知慶州見獄中罪人皆滿公曰何不責保在外判
司白曰此輩多屠販竊盜釋之必復累官司矣公曰終當
何如曰往往疾斃獄中是亦除民害耳公蹙然曰法不當
死在位者必欲殺之豈理耶遂盡呼至庭下戒之曰爾輩
爲惡不悛在位者不肯放汝懼爲民害復累官司耳汝等
能改過我便放汝衆叩頭曰敢不佩服教令遂釋之歡呼
而出轉相告語轉相勸勉是歲犯法者減舊歲之半

범순인이시호경숙의도인호여옥중의죄인이가드구호호호
보고물어왈이죄인은어이처저리호여곳치아니호고호
나뒤왈이무리모도소도호기와도적질호는무리만호는지
라노흔즉반도시도법의범호리나도서관가의근심이될
가함이로소이다공왈연즉필경엇지호는다뒤왈가

문지오리면종종우중의죄병들어죽나니이호호의
민죄히함이라호거늘공왈법의맛강이죽지아닐
조르관원이되여귀어히죽도록함이크무슴도리호
호고이에모든죄인을불너정제호여왈너의무리악
을디고치지아니호미관원이즐겨노치아니함은도시
백성은희호여도시관가의근심이될가두리이니너희
능히어물은고칠진되니맛강이너희를노하보리라
호니모든죄인이고두호여도시죄짓지아니함은도짐호
저르드도여라노호니죄인등이즐겨부르지며나가고서
로정제호여도시범법지아니호니이희의범죄호는
전시여서반이못호더라

王曰



王文正公旦初釋褐知江陵獄有一囚罪當死公求出之
 一夕不寐至五鼓忽然得路即趨出則吏卒皆環侍驚語
 相向公怪問之曰值夏者方擊五鼓忽聞空中有聲曰起
 公將出矣方起整衣不意果出公默然心契因引囚出讞
 竟為平反

왕문정공묘는 송나라 저상이라 칩음의 강능원을
 흠여서더니 옥의 한 죄인이 잇시되 죽기로 절친 최호는 비
 라 공이 그 죄를 의시며 여슬 오고 죄하되 묘라 업숨을
 근심하더니 일일은 밤을 당하야 자지아니코 생각하
 다 가오경의 나르러 호를 연이슬 날 길은 었은지라 석기
 를 기드 리지 못하야 공당으로 나오니 발 석니 줄이 못
 아 뒤려 호여고 죄마다 놀나 쇠로 말하느니라 공이 고이

히너여그연고르니무르니니디와말앗가신경은셔오정을
 치노라하느니호르연공중의셔위여와말별니모다나러나
 라공이나오시느니라하거늘놀나나러나이에모혀서어
 니불의여과연공이나오시패이각하거늘공이또하느고
 무음의암함함음은이상이너이고고우슈르르올녀스체
 히무르니과연원어하느니라드드여평정정절척하느
 라

楊旬



楊旬參夔州推司處心正直積累陰功有子入試旬夢神
 告曰汝陰德有感子必貴須改名楊椿果中第六次年會
 試椿自夢神曰題是行王道而王試日果如其夢中九十
 六名及殿試奪天下都魁夔州使君請旬賜坐令旬解職
 旬乃告曰念旬平日仰托二天之庇奉公四十年家無資
 產惟畱下三個怪囊乞台旨取來當廳開看第一個有三
 十九文當三錢第二個有四千餘文折二錢第三個計萬
 個小錢使君不知所以旬曰每詳讞罪囚但遇吏胥入輕
 作重有從死罪減為流罪者即投一當三錢有從流罪減
 為杖罪者即投折二錢有從杖罪改放者便投一小錢今
 日旬身奪魁皆平日行善所致也敢捨公門而自安逸哉
 陽旬이기쥬티슈의형방아천이되여모음가지기르려

직히하고음덕이그음은도하하더니그아드나이가거의갈서
 님의흔신령이느니라와네음덕의감동음은이잇셔아들
 이반드시쥬티슈를지니맛랑이일홈은고쳐양충이라하
 여쥬라하더니과연그초시의참방하고초년회시의양
 충의몸의또신령이큰죄를미리이르더니또한참방하
 고밋친시출방하미련하도장원급죄르려하여사다라기
 쥬티슈을청하여죄를쥬고리하하니슈이고하여와르
 싱각거리슈이평일의하늘의도으심을니복와아문의
 봉공하온지금스십여년의지배이가난하여남은지산
 이업스오뒤오직웨나쥬머니잇스오니이제가하거와
 보스이다하고지배의사름을보너여웨쥬머니를가져오라
 하여러보니흔쥬머니의느큰돈삼십구리잇고하흔쥬

머니의는중돈스천여기이시고은쥬머니의는죄근돈만
 여기이신지라히취고연고르르므르니순와라이는미양
 오스가의죄르르중히지우거든너힘이거가브야브게호오미죽
 정호는죄르르중히지우거든너힘이거가브야브게호오미죽
 을죄르르고취러향가게호면근돈호나호르너코취향갈죄르
 고취러향가게호면중돈호나호르너코취향갈죄르르고취
 비방호게호면죄근돈호나호르너이니은곳세가지
 돈잇은쥬머니라금일아들의장원이도시평이르착호
 님감호음이니엇지범연라호리오호더라

錢若水



錢若水為同州推官有富民失女奴父母訢於州委之錄參舊與錄參隙遂申核富民父子共殺投屍水中富民已誣服獨若水遲疑錄參指廳詎曰汝得賄欲出之耶若水笑曰父子皆坐重辟豈不容某熟察又越旬不波知州亦有言若水終不奪一日若水詣州所屏人告曰其女奴之父母實羨富民之家財因其無隙可乘遂匿其女而傾陷之今得之矣知州遂釋富民父子富民詣若水謝閉門不納富民遶垣而哭知州欲以此奏之朝廷若水辭曰某初心止圖拔冤非圖爵賞且朝廷聞之如錄參何知州嘆服太宗聞其事擢知制誥進樞使歷禮部尚書後無病而終

錢若水라 함은 사림이 동주 추관이 되엇더니 그쳐 부민이 이척 함은 제지비공은 이리 혼지라 공의 부모 고은의 소지 함은 건지취 녹 참의게 맞려서 힘함이라 함니 녹 참이 본디 그 부민과 혐의 잇는 지라 드드 여 부민의 부조를 잡으되 그 공은 죽여 물수의 감초다 함여 공 극히 취유니 부민이 형벌을 견디지 못함여 이의 이미 이승복 함지라 약취고오스름의 심함여 드스름 피려 함디 녹 참이 형상을 가르쳐 약슈를 다지려 왈네 회되르르 밧고 부민은 노흐러 함는다 함니 약취고오와 이 제 사림의 부지 함여 죽을 죄의 드러서 거늘 엇지스 쇠히 슬피 지아 나리요 함터라 드 일순이지는 미지취도 함결은 함라 함은 말이 잇는 지라 약취마춤너드지아나 함더니 일은 약취지취의 게 나 아가 사림은 물론이고 함여 왈그종의 부모 실노 그 부민의 지물을 함함함여 모히코려 함으로 죄들을 감초고오스름니 루미라 이 제 그들을 스스스시니

감초고오스름니 루미라 이 제 그들을 스스스시니

옥죄음을가지로소이다흐니 지쥬그말을듯고크게괴특이
 너겨즉시부민의부츠를노코이닐노백조점의알외러
 흐되약채스양응여와날나의최음음이다만사름의
 이미흔죄를벗겨원억흐되생지우지말고죄음이니작
 상을의흔비아니요또흔조점이니를드르면누참의죄
 만흔지니엇지불가치아나리오흐니 지쥬더우란부고
 더라리종이드르시고괴특이너이샤츨밀스름은이시고
 그후비슬이네부상셔의니르러서더라

張慶



刑官善報

張慶汴人爲右軍巡院吏司獄矜慎自持日躬持筭滌暑
 月尤勤每戒其徒曰人罹于法豈得已哉我輩以司獄爲
 職若不知所恤則罪人何所赴訴耶飲食湯藥臥具必加
 精潔嘗爲好言教囚果有罪當自招無誣良善以重已過
 故不拷訊而疑獄常浚妻年四十八病歿神語之曰汝夫
 陰德大子孫當有興者汝且歸明年子享生後慶年八十
 二無病而卒六子皆顯號世族

장정은 변작사름이니 우군원 마을의 옥가으마는 아
 전이 되었더라 사름되오 미범스의 근신하고 부즈런하여
 날마다 비를 들고 옥중을 쓸어 청결토록 할시 비록 성
 함더위라도 더옥성근하여 다의 양동표를 정제하여 왈사
 름이 법의 길너미마지 못하여 가도며 드스림지언정 우리

무리 옥가으마는 직척이잇스니 엇지 무함라아나 리오만 일
 우리잇쳐고호라아나 함면 죄인들이 어리가 하소어함리
 요함고음식과 양약과와 구를 청함고편토록함여 죄인
 을주요상히도흔말노써 죄인을 무치되 과연 죄잇거
 든스스로복초함리거시오냥션함사름과이미함사름을무
 소함여 제몸의 중함허물이 되지아나 케함라함나 이러
 므로 모든 죄인이 감복함여 과로이치지아나 함되는 심된옥
 스름미양공평이절단함더라그척의나히스심판관이오
 또함무스함더나일은은 병들어죽은지라그혼이명부의
 드러가나 신령이잇쳐날너왈네지아비음덕이세상의
 큰지라네스손의맛다함함함저이실거시너너는가히도
 라가라명년의맛다함이싱스함리라함거늘드드여회

심호여이말을니르고부벽셔로과이히너이더니그후
 의년호여누크를나코경은나히팔십이의병어부시
 졸호고그후누크모다부귀현다른호여쇄되거족이되
 나라

梁統



漢梁統上言乞增重法律當時不從其議後統忽夢神人告曰雖幸朝廷不從爾言陰府已錄爾過爾今欲以刑毒人將來爾子孫皆被刑死獲罪于天無所禱也後統二子皆以非命死至冀皆滅族此刑報也冒起宗曰梁氏增刑議雖未波而舉念已墮惡業是以陽誅陰譴禍及子孫夫人舉念可不慎與

한나라냥통이코르온너형범은중히ㅎ기르친ㅎ니
조정이고의논은곳지아나ㅎ여어라그후동의꿈의흔연신
인이잇셔닐너와르케조정의청ㅎ여형벌과범을중ㅎ게
ㅎ라ㅎ의비루조정이고곳지아나ㅎ여시나명부의이의게죄
르르과루ㅎ니라네이제모음말독히ㅎ여형벌노쳐사름은
히ㅎ고쳐ㅎ니이러므로네손이모다형벌의죽은거시오

이피하늘의죄르어덕시나벌어도유이지아니라ㅎ
더니그후의과연통의두아들이다비명의죽고또동의
즈손냥기의게니라말죽ㅎ는화르당ㅎ니이노형벌
의보용을바오미라모괴종이르오라냥시의형벌더
ㅎ사ㅎ년의논이비루히ㅎ아나ㅎ여시나모음말의미
이의몸슬기의범ㅎ여시나이러므로가만ㅎ척망과드
러노형벌이잇셔그양해즈손의게밋츠시나직쳐사름이
모음말기르어지슴가지아나ㅎ리오

周興



唐武后時政尚嚴酷周興希旨暴刻殘酷殺人甚多或告興與丘神勣通謀武后命來俊臣鞠之俊臣與興方推事對食謂興曰囚多不服當為何法興曰此易易耳取大甕以炭四周灸之令囚入中何事不服俊臣乃索大甕火圍如興法因起謂興曰有內狀推兄請兄入甕興惶恐叩頭服罪論死流嶺南中道為怨家所殺

당나라 무후씨의 정사엄하고 호도구한지라 그씨의 주홍이라 하는 신히 무후의 뜻을 따 초와 스오나 남고 각 박하며 잔인하고 호도구한 여사름 죽이므로 도하한더니 사름이 서주홍이 모반한다고 한 것을 무희이의 다투신이라 하는 법과 같은 명한 여주홍을 국문하라 하니 죽신이 맛참 주홍과 동관이라 더 부러 죄과한 여죄인을 죽문하며

치밤먹더니 죽신이 죽흥드려 무려와라 죄인이 미양승복
 지아니 하니 무슨 법을 하니 야도 흥고 하니 흥이 다와라 이
 아 조취은 날이라 큰 독을 취하니 노코슈트로 써서 면을에
 우고 부를을 띄우면 그독이 달흔 지니 죄인을 잡아 그독을
 의디 하면 무슨 날을 향복지아니라 요하니 죽신이의
 독을 가쳐오라 하니 죽흥이니 르던리로 부를을 띄우고인
 흥이니 러나 죽흥드려니 너와라 군명이 쇠형은 추문흥
 라 흥여시니 청견지형은 이 독속의 들나 하니 죽흥이
 겁흥고 두려머리를 조아 향복하니 논죄흥미 마스당이
 죽을지라 감스정비흥여 영남으로 가더니 풀근 정형의
 지은 사름의 게 죽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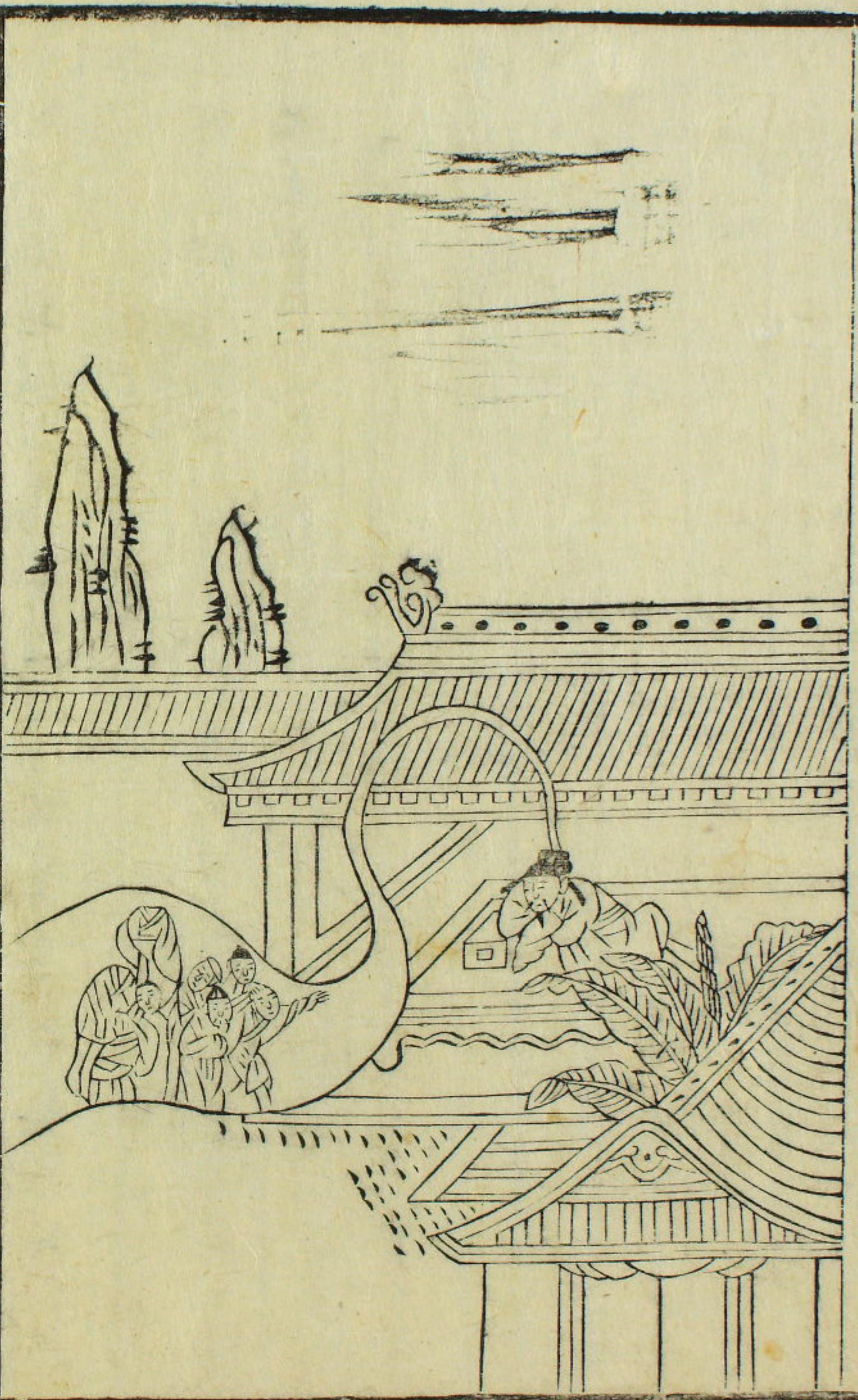
索元禮



唐索元禮性殘虐武后將除異己者元禮揣知上旨卽上
書告變因爲制獄作鐵籠鞏囚首加以楔或至腦裂死又
橫木關手足展轉晒曝或縛囚梁柱繩石於頭訊一囚又
牽連至數百後坐受賕下吏訊之不服曰取公鐵籠來元
禮乃服死獄中

당나라삭원네라하는사람이성품이잔인하고포함한다
니무희창츠그모음의마치아니하는신하를덜어브리라
하는시원네발셔그뜻은알고즈시글은올녀고변하니
무희인하여원네로써그옥수를스리게하니원네이
의쇠얼기를만드러죄인의머리의쇠우고그듬의쇠아
기를쳐죄오니후두끝이미여적죽는지잇는지라또큰
남그로착고를만드러슈조은잠이고구을녀포양이
썩이며후죄인은기동의결박하고머리의무거운돌
을달아아러트악형하며후죄인은스리미슈빅
인이연좌하는지라그후원네회되방은죄로옥의스리
이쳐추무흔시즐거함복지아니하는거늘옥관이그르니
그뒤의쇠얼기를가져오라하니원네그제야승복하니고옥
중의석죽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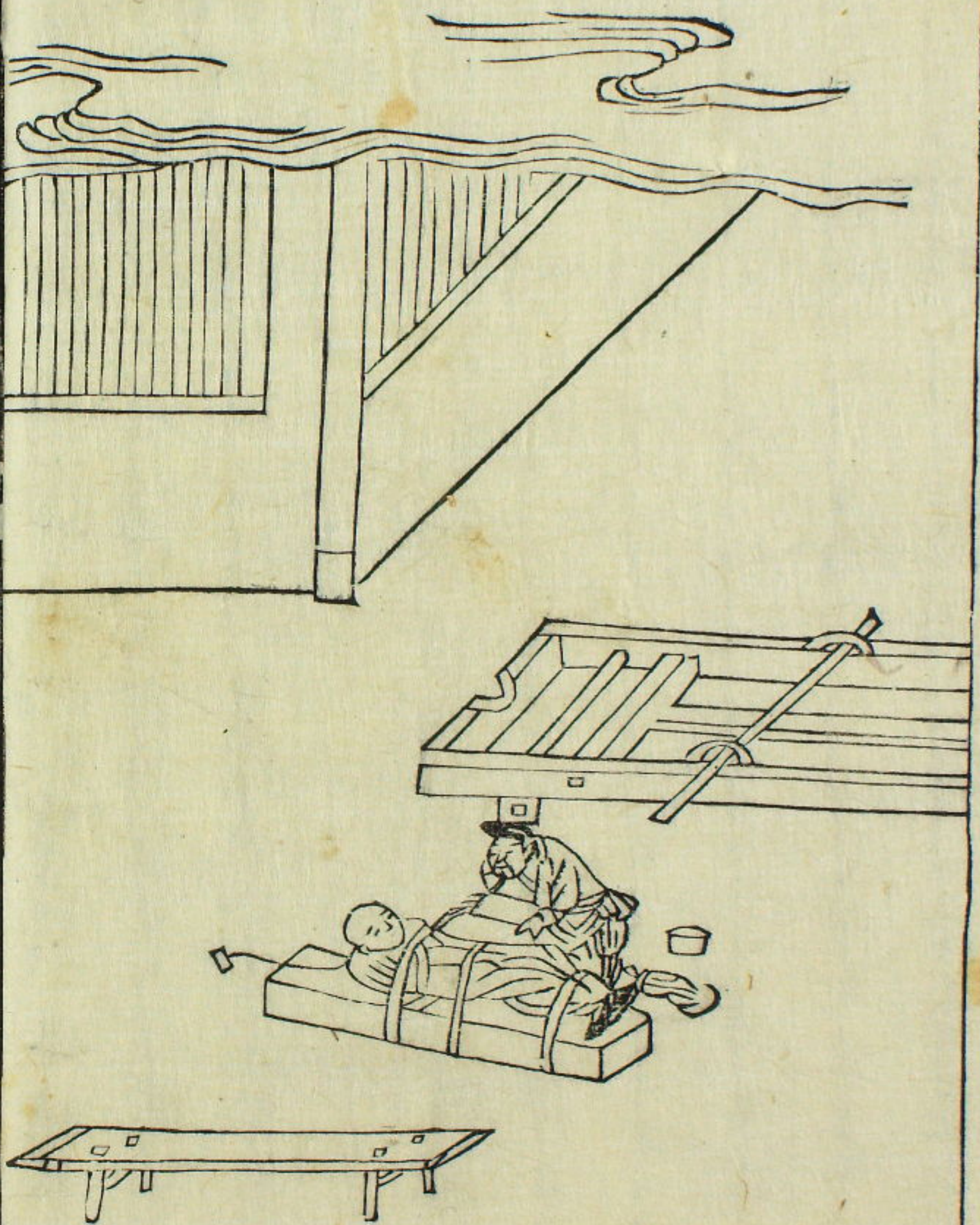
張汝慶



張汝慶爲提刑每審囚不論罪犯輕重諸刑借施名曰打一副又謂閻王催到後任滿歸夜夢數百人破頭折足身無完膚呼之曰我輩爲汝枉殺當還我命至家旬日七竅流血而死

장여경이라 함은 사람이 제 형 벼슬을 함여 죄인을 드스린 식적의 경중은 의논리 아니 함고 모든 형벌을 마구부리더니 과만 함여 도라 갈식 그 밤 꿈의 슈빅여 이머리 도씨여 지고 드리도 상 함고 팔도 부러 적 함나 도성 함저 업는 지라 일시의 소리 함여 부르 지져 왈 우리 무리 모다 너 노 함여 의미 죽었시너 우리 목숨으로 도로 달나 함고 못치기를 마지 아니 함더니 집의 도라 간지 겨우 열 함은 되여 칠 귀로 피를 함늘 나고 죽으니라

李若水



李若水爲淮南司理時有劫賊五人事敗繫獄言與僧人
 自成一黨五人已戮僧方追到言實未嘗同盜若水堅執
 賊語夜以溼紙餽僧口鼻壓以囊須臾臍腹裂月餘獄吏
 李能無故大叫和尚不干我事特司理驅使耳言訖而死
 明日推司劉元亦暴卒又明日若水小腹絞痛號呼卒又
 明日知軍孫誥判官周禹亦皆暴卒後若水一門死無遺
 類

나약슈는 회남스리비슬을 하 여씨의 강도드 처슬잡으니
 강되 말하되 일즉은 중으로 더부러 하던 당이 되엇다 하더
 니그드 처스도 적을 이의 죽인 후그중이 비로소 잡혀와서 거늘
 위엄을 배퍼미이적 슈나그중이 실노이미 하느니라 만단으
 로원 동음은 고하되 약 슈마침니그도 적의 구초를은

흔죽일노전지바흐여드드여형벌은엄히흐리서밤의적슨
 조히로백그중의니바과코르보호호여브르고또죽머니르리지
 어호리과돌은만히너허비르니니비가죽이러적
 죽엇더라그후일여의그옥아천나름이호리연소리질
 너와나는화상과간섭함이아나라특별이스리의분
 부로구축호여시긴비라호고말을맛츠며죽고그이른
 날옥축스호는뉴원이또호포스호고또그이른날약
 쉬호리연부통이그호여소리지르며죽고또고을지군손
 고와관관죽위다포스호고그후약슈의일문이몰스호
 여호기도남이니업더라

楊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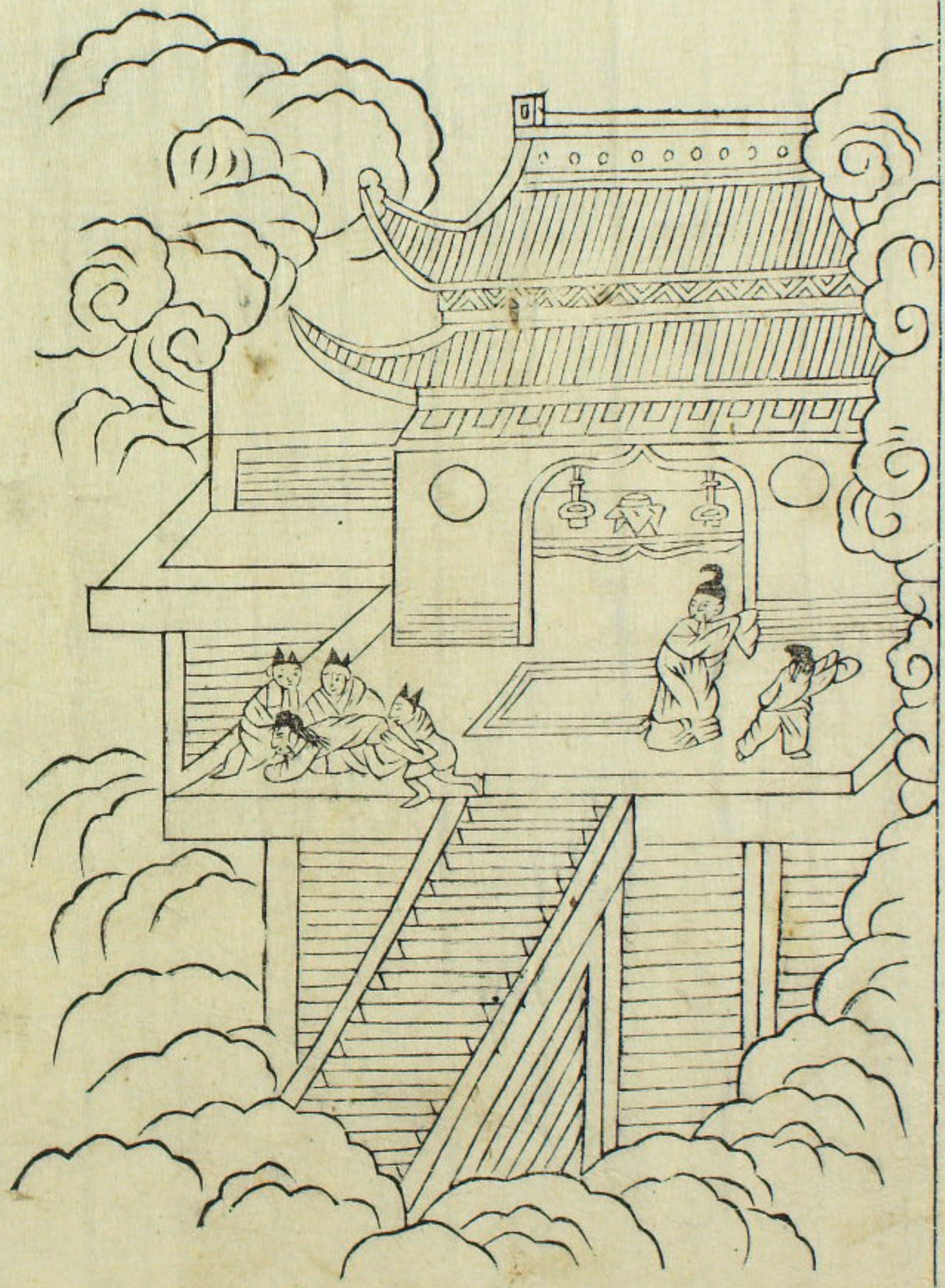


明楊鐸嘉興人舉庚戌進士授吉安推官生平陰鷲多以
密謀陷致人死又性兇暴斃杖下者極多嘗白晝坐堂見
羣鬼索命後病歸每爲羣鬼所魘病日甚已死復甦家人
欣幸鐸曰否否陰司遣暫還示顯報耳冤對滿堂亟供酒
食多予楮錢家人從之方設酒饌於庭中屠兒倪鐸酌而
遇之詎曰此何爲也悉取啖焉羣鬼怒謂楊曰姑緩子而
以倪鐸往楊喜謂倪且代已令人往視則倪以腹痛暴卒
矣肉未寒也楊卽以十金授其家命納棺隨火之乃倪實
爲羣鬼所攝法不當死魂歸而屍已灰同羣鬼作屬於楊
家爭喫其肉拔其鬚沒其面目周身潰爛而死時鄰適有
新死者倪鐸附其屍蹶然起立奔至楊家大呼曰我擊殺
其少子以抵焚屍之報乃趨入內踣其少子屍遂仆地遠
近相聞無不驚怖

명나라 양타은 가흥살림이라 이르스진스흥여길안고은
츄관버슬을흥여서더니 평성의으투흥여가만흥씩로사
림을모히흥여죽을씩씩지우기를만히흥고또성품이
흥포흥여사림으드스리미그장하의죽은지무슈흥더라
이흥은다양의안렸더니 백쥬의 못취신이 드라드러모기
슈미를달나흥는지라이흥여병드러버슬을갈고도
라와서러나날마다여러취신의보치이믈바아병이날노
심흥여죽엇더라죽은지오리지아니흥여호를연스시여
나니집살림이깃부고다형이백여석로치하흥거를타와
니이제회성흥이아니라명스의날을잠간도로너
여보니여그감흥바스름을뵈려흥이라이제원여흥취

신이 뒤뒤 되어 당상의가 득후 여시니 급히 주식과 지편
을 만히 갖초아 주라 후디가 중사름이 그말을 좃츠즉시
주찬을 만히 장만 후 여 쓸가온디 버리더니 맛춤동니의
빅그림질 후는 예타기 이라 후는 지이 되 슈말을 취 후고 드러와
이거동을 보고 소리질 너와 같이 주식은 엇지 후는 것 후고 후며
스스로 거두어 먹으니 못 귀신이 노 후여 양락 드러 널 너와
아직그림은 멍추고 예타을 잡아 가리라 후니 양락이 말
을 들 고혜아 리 되 너 몸디 신의 예타을 잡아 간다 후여가
장깃거 후며 사름을 보너 예타의 집의가 본즉 예타아
복동으로 목수 후여 몸이 오히려 식지 아니 후 엇는 지라 양
락이 즉시 십금으로 베풀 예가의 집 사름을 주어 관과 후
가 초아 입관 후고 즉시 소화 후여 그 후는 권을 어 밍시 후여
더라이 석예타이 모든 귀신의게 잡아 후여 갖시나 기실은 맛
당이 죽을 비아 니라 그 후는 노히여 도라 오니 췌의 시신이 발
석찬저 되 엇는 지라 후는 일 어 되 모든 귀신으로 더부러 후
가지로 양가의 작난 후는 시양락의게 드러 들 어 드도 아고
고기를 너 후는 며 슈발은 의 뜻 으며 눈을 지 너 췌 등 구치
며 낮출 후는 어 상히 오니 혼신의 후라 후여 필경 죽으
니라 이 석의니 후의 식로 죽은 사름이 잇디니 예타의 후
이그시체의 부쳐 널려 나 보로 양가의 집의 드러가 의 호와
너 맛당이 네 아 들은 죽여 너 시신의 불타 온 원 슈를 가 받
리라 후고 이의 안 후로 드러 양락의 어린 아 들을 받
노박 추 죽이 고그시체를 후는 어 버려 너 지니 원근의 들은 제
놀나 지 아니 리 어 버 더라

歐陽遇



歐陽遇判大理寺有標陽縣令余紹卿坐事繫獄罪不當
死而遇呈以死人皆稱冤自後行住坐臥即見紹卿遂至
廬山九天採訪使者觀設壇解謝初夜即見紹卿在側明
旦投心詞俯伏間被數鬼擒擲殿下血流被體而死
구양위 뒤리시의 벼슬은 구양위시니 표양현령이 소경이
라 하는 사람이 이것을 옥사의 드러 시니 기실은 죽을 죄가
아니라 구양위시 죄로 알외며 죽이니 모다 원동라 니르더
라 그후의 안즈나 누으나 소경의 혼이 눈앞의 보이는지라
일어다쳐녀산 구련도관의 나가 지을녀 괴도응시 초야의
보니 소경이 곳것히 잇는지라 날이 실려의 추스하며 언변
렸더니 문드러어 귀신이 우르른 잠아 천아리로 리치니
몸의 피르른을 니고 죽으니라

李元禮



福清李元禮爲龍溪簿攝尉事獲強盜六人在法七人則
 應改京秩李命弓兵搜平民以充數皆論死李遂轉承務
 郎恆見冤死之民立前及調官泉州東裝出城鬼隨之不
 去夜宿龍山暴死

복청니원네라하는사람이봉계주부르려하여고으니
 을여스리러서맛춤강도여섯사람을잡으니그씨범의도
 적닐곱을잡으면경직으로승품하는비라이에낭민하
 나흔충슈하여음익죽이고인하여승무랑벼슬을하
 여더니그후로종그원통이죽은사람이아래희되는지
 라및벼슬을올마천슈호로갈시성밖그로나가니그귀신
 이또흔뒤르려로며물다가지아나하더니원네형하여
 동산에서니르려급히죽으니라

衛仲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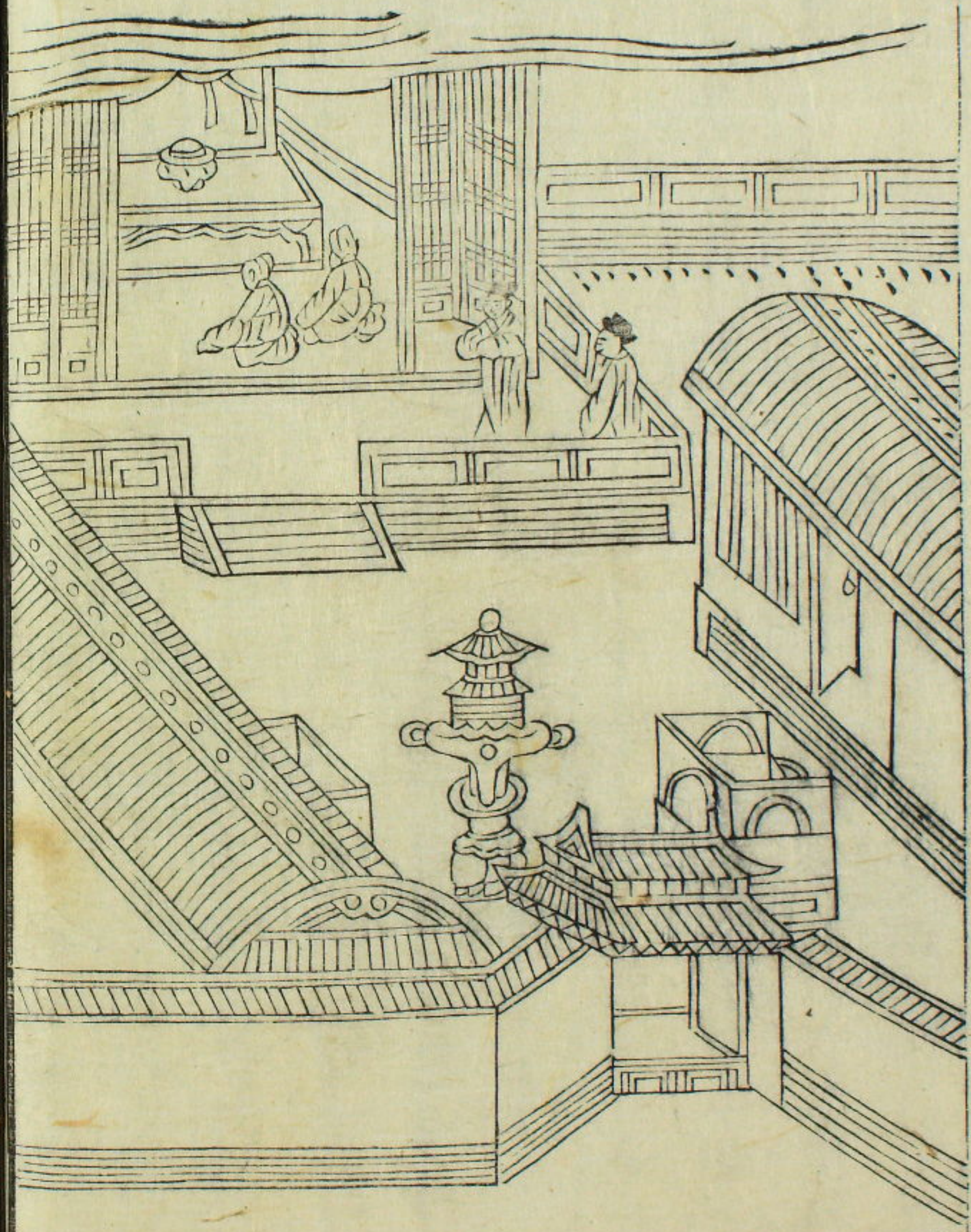


衛仲達初為館職被攝至冥司冥官命吏具呈善惡二錄
此至則惡簿盈庭善簿纔如筋小官色變索秤稱之其小
軸乃壓起惡簿官喜曰君可出矣仲達曰某年未四十安
得過惡如是之多官曰不然但一念不正此則書之不待
其犯也仲達曰小軸中所書何事官曰朝廷常大興工役
修三山石橋君上疏諫止之此書稿也仲達曰某雖言之
朝廷不從於事何益官曰朝廷雖不從然念之為君為民
者即此一事已足倘使聽從則善念流行乘此拜相度世
矣奈惡念太多力已減半不可復望大拜後果止吏部尚
書

의중달이라함는사름이최음의스관벼슬함엇실제
호른이죽어명부의드러가니명부와원리아적은

명호여중달의 쇄상의 이실제착호닐과악호닐과
 록호닐거슬가좌오라호여보나악호닐과로호호문서
 는뜨들의가득호고착호닐과로호호문서는저유좌가락
 만호닐라명호부관원이노식을의여좌우를명호여
 좌을노두문서를달아보니그착호닐과로호호척은문
 서의무게도로혀악호닐과로호호만호호문서여서디
 무거운지라관원이의깃거와글그타는가하나가리로
 다호호거늘중달이와닐나히스십이차지못호여엇지악
 호호물이니곳치만호호리오관원이와호호는그러치아나
 호여다만호호싱각이라도오르치아나케호호면이곳의서즉
 지에괴로호호엇느니구호호여죄를범호호기를기드리지아
 니미니이러므로그취이러트만호호니라중달이와닐저척은
 문서의썩말은무손닐이니잇가관원와호호는조정일이
 일조크역스르닐희여삼산척교를고칠시그위상소호
 여말녀시니정히그글쓴조희니라중달와닐비록글을은
 녀간호호엇시나조정이듯지아나호호엇느니무손유익호호의
 이서착호호닐이라호호리오관원와호호는조정이비로호호쫓지아
 니호호엇시나그싱각이우호호로님군은위호호고아리로백
 성의인척을스리호호호호음이니다만이호호닐이조호호
 지라만일그상소를시호호호호엇든들그위의착호호년이체
 상의호호닐시라니일노인호호여정승도호호거시오신척도
 될거시로되다만악념이너무만호호음으로그힘이반이남아
 감호호엇시나드시덕비호호기는브라지못호호리라호호더니그
 후과연니부상척호호지호호니라

江陰二生



萬曆間江陰常脩縣誌有兩生在局纂輯見舊所載節烈
 內有二人事平平無奇取筆抹去之婦過城隍廟見有兩
 婦人入內兩生異而尾之婦至神前訴曰某等一生苦節
 事載誌書今無端為某某削去兩生聞呼其名即跪訴曰
 一時誤筆願即改之言畢兩婦忽不見矣此婦兩生精神
 恍惚不久並卒

만년년간의강음현의일즈음지를다글서두천비이석그
 글은모흐더니넷적읍지의과목호년년히정적중의두부인
 이이스되그날이평호호여별노과두음이어버는지라이호여
 부스드러어호리우고음지의오는지아니호여사더니두천비
 집으로도라갈시길이성화호를리나더니호연보나두
 부인이이석성화호묘안호로드러가거른고이히년여미

좃차드러가보니그두부인이묘신압히나가하소언하
 여근오다우리들의평성괴로운질근로그날이음미
 의심녀거늘무단이아모아모두사람의부스럼가업
 시형엇시너스못원어하어이다하거늘두원비제형명
 을부름은드고크게놀나이의또한살어빌어와라
 리등이한덕부스찰잘못들녋소오니원컨디즉시고
 치리이다하고말을맛으며그두부인이간디어는지라
 두원비의제집의도라가미죄신이화홍을하더니오
 리지아니하여다죽으니라

林鎬



林鎬莆田人爲工科給事時議開陝岱以通運載鎬奏罷
之後以別事謫龍泉丞傷寒既死而未殮鎬至一朱門中
枷杻者不可勝數紫袍者索林鎬善惡簿鎬見天平內惡
重善輕俄一變自空而下手擲黃卷於內善忽偏重乃諫
罷役疏也於是聞主者呼云入獄者某某變性者某某還
魂者林鎬鬼使乃引鎬出鎬問紫袍者爲誰曰宋參政范
仲淹也驚而寤

님호는포천사람이라공과급스벼슬을하엿더니씨의
조정이의논이섬주디주디히산과언덕을열어조은길
을통하랴하늘시님회상소하야그닐을간하야말너
더니그후동천승이되여맛음상한병으로죽은지라그후
이치오하야하분근칠은문으로드러가니그안히갈쓰
지무슈하고또분근웃님은사름이이셔님호의어진니
괴로움은문셔와악하늘닐괴로움은문셔를취하야죄을의다
니악하은문셔무겁고어진문셔가반압더니호연은노인
이공중으로셔느려와손의누른척하은권을가져어진닐
문셔편의노하니문셔무겁기비나하니이간하야큰여스
를막은상외러라이의브리는웃님은사름이모든죄인
을취결하늘셔크레호명하야와큰오의가오르느니아모아모
요즘심으로리여닐르느니아모아모요도로슬녀보닐르느니
님호라하더니우하야하귀시님호르린도하야나갈
시회스드러무리와큰죄브리는웃님은사름은닉표키시
답왈이느송나라참칭범중어이라하더라회인하
여늘나셔야회상하나라

劉元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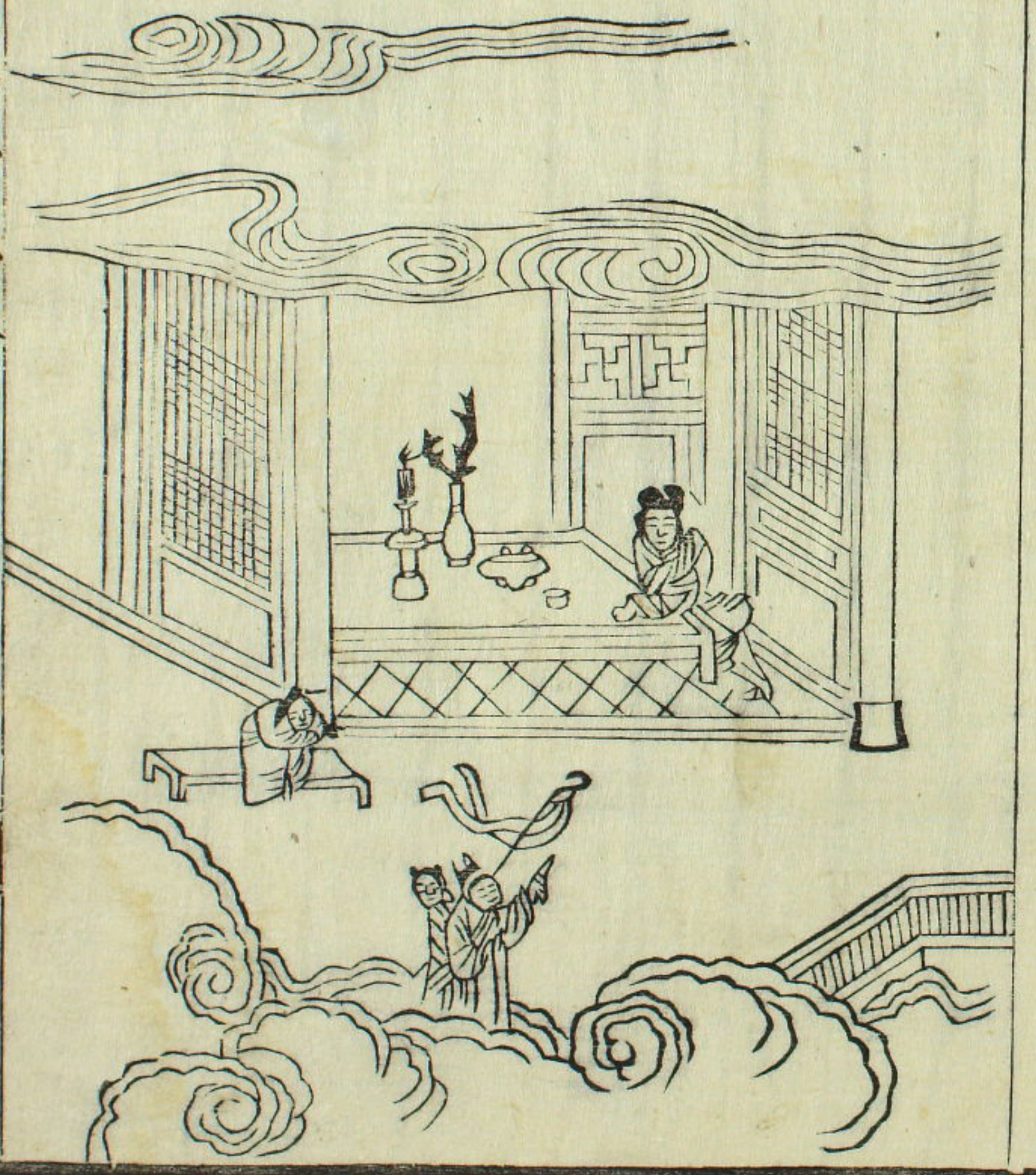


劉元昌字器之既登第復從學每以漆雕開未能信斯為
 歎及拜諫官公忠敢言累抗疏論章惇小人不可用人皆
 為縮頸及惇用事公遂遠竄人言春循梅新與死為鄰高
 竇霄化說著便怕凡此八州公歷其七雖盛暑畏途泛海
 冒險監督者不少寬假人皆謂公必死而竟無恙時公賤
 所有一貲郎揣惇意欲徑殺公惇即擢為本路判官其人
 飛馭來去賤所纔二十里止明日將處公左右震懼夜半
 忽聞鐘聲貲郎如有物擊嘔血死矣

元昌嘗의스노귀지니일죽등과하고드시하구업을힘쓰더
 니밋간관이되미공번되고충성되여발은말을감히할시
 여러번상소하여장돈을소인이라논핵하니사람이모다놀
 나고드러다밋장돈이용스하미공이인하여원지정비

公을 시던 하제일 악지는 춘추순주미주시니 주고주두유외주
 화주라 이여 뵈고을의 공이그일 곱공을 적고되 비록 성은
 더위와 함흥의 길의 보라흔라며 장공은 무릅쓰고 아담영은
 는 지조공도 누그러오미엄스리 필경 관제치아니 후더라이치
 공의 적소의 흥부민이 이서 장돈의 뜻을 마초아공을 르
 레죽이려하니 장돈이 깃거고을의 관관을 삼아 취치케하
 니 그부민이 나눈즉 시공의 적소를 향흔서 자유아십니즈
 음을 못미쳐 나른이 적물의 밤을 리키고 명일인의 장초공
 은 필척하라 하니 좌의 다놀나고 두리더니 그밤의 흥은 연
 조소리 나며 공중으로 서부민을 치는 듯하 여 급히 죽으니
 이러므로 공이면 화하니라

林機



蜀郡旱荒有司奏請發米十萬石以賑贍 旨下如所請
林機為給事奏曰米數太多道遠難致朝廷遂以半賑之
是夜妻王氏恍見朱衣人曰林機逆首害民

上帝有勅特令滅門因驚悸醒與夫言之機曰昨入朝有
阻穀賑饑之請莫非是事乎自此不安以病回鄉行至福
州卒二子繼歿門戶遂絕

초근이 일즉가물어시절이황황하니유식알외여쓸심만
셔을보내어인흔갈근기른칭은디상이도쳐하사칭은디
로허하여계시더니남과라하느사람이급스버슬노이쳐알외
여큰오리공식셔쉬라하고또길이멀어슈은키어렵다
하니조청이그말노조초근슈르반감하여사더라이밤의그
최왕이시움의흔북은오스남은사름이남녀와남과남근
의뜻을거스리고백셔을히독계하니상제드르별이킨지
르느리우스하의곰멀문지화르니슈시니라하거늘놀나셔
여니괴로더부러몽스르니르니니괴와늘너어제조청의드러
가알외여인흔갈근막아더니아노근이가하구일노
조초근의심신이불안하니병으로인하여버슬은브리
고향으로도라갈시칭은여부슈하느니라죽고그두
아들이도흔이어죽으니일문이인하여뜻취지니라

王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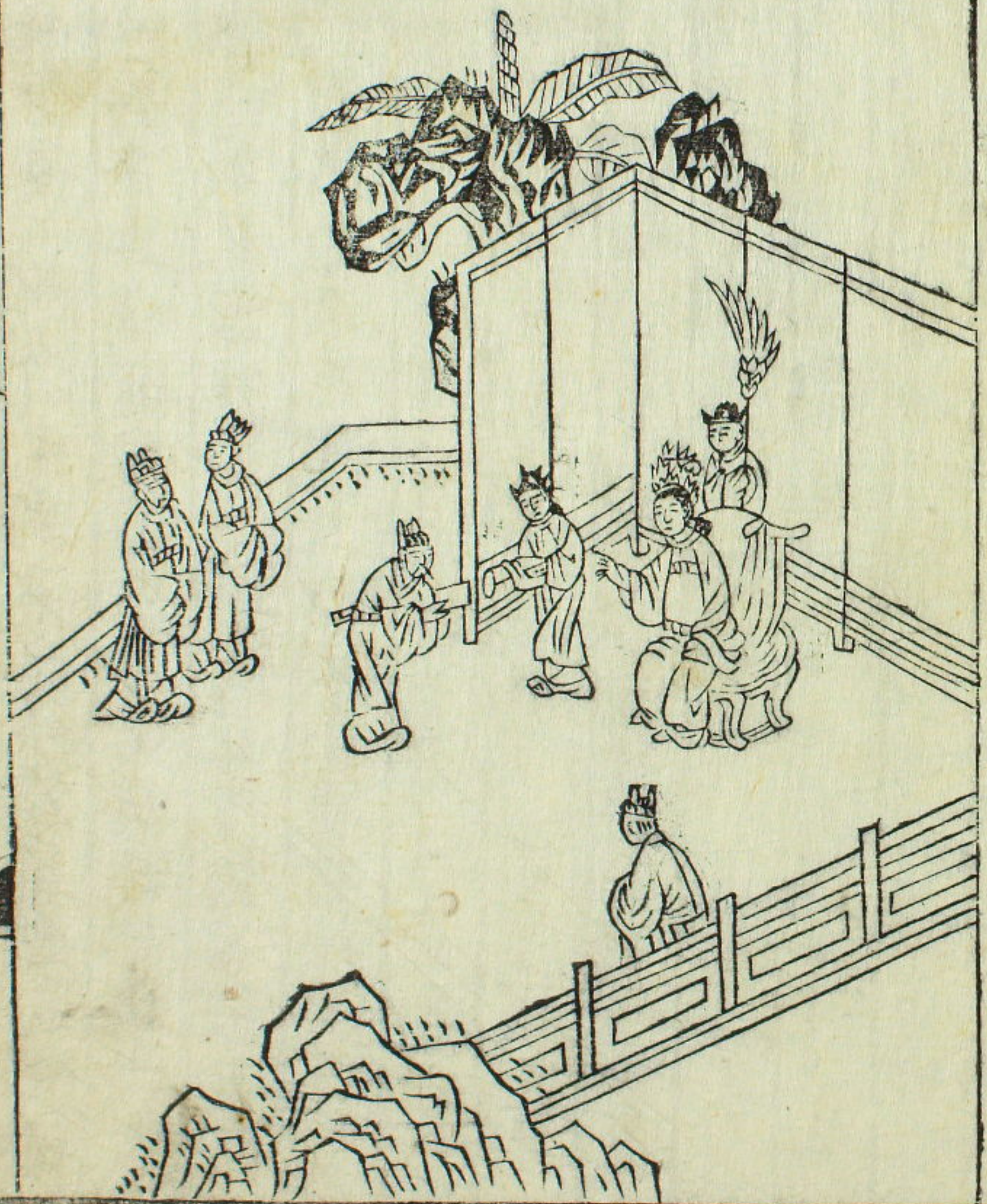


明景泰中王翰爲御史上疏勸易儲與禁錮南城事甚切
 及英宗復位翰乃屢言二事之非上悅之許以大用一日
 上御便殿忽風飄一本於御前閱之則翰勸易儲及禁錮
 疏也急宣翰入示之稽顙出血遂伏誅此認恩推過之報
 也

명나라 정리 황제 시련의 왕한이라 함은 사림이 어스버
 슬은 함어사더니 리스 바고 아외우기와 남성의 금고 함은
 니르니 너 권 함어 함을 시고 말 이 심히 간 권 함 나 이 영
 종의 리스 르 폐 함 고 취 리스 르 세우 스 함 과 영 종 은 남
 성의 가 도 자 함 이 나 이 두 날 은 영 종 이 심히 한 함 비 라
 그 후 의 영 종 화 제 보 의 함 미 또 영 종 의 뜻 은 아 당 함 여
 조로 혀 말 함 되 그 두 날 이 심히 크 라 함 여 스 로 말 함 나 상

이귀득이년이사장호크게쓰기로허락하시니라일일은상이
 편권의어좌호실시호연이글쓴조희호장이어전의허
 러지거늘좌우로호여곰잡어오라호샤허여보시나이곳와
 한의뒤저밧고늘닐과및남성의금고호닐은년권호
 상소초본이라급히왕한을불너드러오미그글을백이시
 니한이머리를조아피를호닐니고침정호거늘드여취
 참호닐이년제은혜아닌거늘제은혜로라호며제죄를남
 의게밀우노보응이러라

杜肅



武則天時禁天下屠殺拾遺張德生男私殺羊會同僚補
闕杜肅懷以奏明日后謂德曰聞卿生男甚喜德拜謝后
曰何從得肉德叩頭伏罪后曰朕禁屠宰吉凶不預自今
召客亦須擇人出肅表示之肅大慙舉朝欲唾其面

무츄러던 처의 년하의 녕하 여양주거어기르금하
던니습유벼스르장던어아드르나흐막크게잔치하
시스도이양은잠고동포르친하엿던니보견르벼스
흐두속이잔치의참예하엿다가양의고기를포슴어
후의알외니구아든날타희장던르려니와와르드
르니경이싱저하다하니심히깃부도다장던이비
샤하거른희노무리와르경이동포르모하잔치를하
다하니어되르조츠고기르어잔치하어노고하시
장던이어러후의알은시름을알고화공하어고두
칭죄하니러희르오샤디리미스도르금하미다만무
고이죽이믈금하미요길하장디스의논하르비아
곳하여관제하리오슈연이나츠후는키음모드미부
디사름을갈히여칭하르지라하시고드드여속의
포르니여비시니속이크게붓그리고만조빅관이
다그얼굴의츄름바스고적하더라

趙抃



昔趙抃帥蜀時有妓戴杏花色甚麗公偶戲曰髻上杏花
 真有幸妓即應曰枝頭梅子豈無媒至晚公使一老兵呼
 妓遲遲不至公忽厲聲自呼曰趙抃不得無禮急令人召
 回老兵老兵乃自幕後出曰某實未往某事相公最久相
 公邪徑分毫不深知今日之事不過一時此念便息耳
 송나라씨의도변이라하는사람이서연절도시되었더니그씨의
 일흔남년가싱은나히잇서머리의형화를요스시니식리결승
 흥지라공이우연이희롱흥여왈계상형화진유형이라흥
 니이그식을기려희롱흥이라그기싱이즉시응성리왈지두
 미즈귀무미리오흥니이일노중미흥여스스로천거흥는뜻
 이라공이미그식을기거흥고또그저조를스랑흥여이날밤
 의흥는흥은군스로흥여금그기싱을부를서낭구히오지아니

秀水姚思仁萬曆年間巡按山東河南誅殺頗多忽被攝
至冥司羣鬼索命冥王詰曰爾爲御史何好殺如此姚曰
某爲天子執法非好殺也王曰此言過矣凡爲官當體上
天好生惡殺之心先王刑期無刑之意今爾不以哀矜勿
喜自省理應受罪姚曰固也當兩省凶荒某曾上疏請賑
所活不下數千萬獨不可相準乎王曰此爾幕賓賀燦然
之所爲也已註其中年富貴矣姚曰稿雖賀作疏由某上
獨不可分其半乎王乃依言斥去羣鬼令其生還賀亦秀
水人少年家貧從姚於官因見凶荒特作疏稿勸姚上請
救饑者也賀四十後中進士累官冢宰姚亦官至工部尚
書

수슈하히요스인이라하노스사람이만년간의어스부스르
이되여산동과하라모을스한히음을시스부스사람죽이미만
하스더니홀연귀스의게잡히여명부의니르니두슈하노귀신
이목숨을달라나흐며드년왕이힐문하여왕네세상의
이쳐엇지사름죽이믈이곳치요하호고스인이되왕네년
스름의하여집법음이오죽이기로도하음이나니로소이다
왕왕네말이그르다무리스관원이되막맛당이상현의
호성지덕과천왕의형벌어미시하는뜻은본바은거
시어늘이제너는사름은불상이너이름음으로써경계
치아나흐니이맛당이죄를밧으리로다스인왕그르진
실노그러다흐려니와성각건덕기시흥년을다음여야
성빙기성이죽기의니르러거늘너일즉상소하여인홀
을칭음여스시니슬은비슈천만의느리지아닌지라엇지

흐른노이닐노써상적기지못하리오왕왕일은네막하의잇
 는하찬연의시긴비라입의하찬연으로중년부귀를들
 게후엇시니너는알은채를비아나로다스인왕그상소초
 는비록하찬연의지은비오나소를올녀서스호기본날노
 말미암으미니그말을올히녀모든귀신은물너리고
 하니왕이그말을올히녀모든귀신은물너리고
 혼을로로녀여보너라하찬연도또흔수슈적사름이니
 소시의집이빈하늘여요스인을죽쳐막중의잇더니홍
 황흔시절을다양하여소초를너고스인을권하여조정의
 청은야귀민을슬닌죄라하찬연이나히스심후의
 진스하여벼슬이홍적의너고요스인이또흔벼슬이공
 부상서의너르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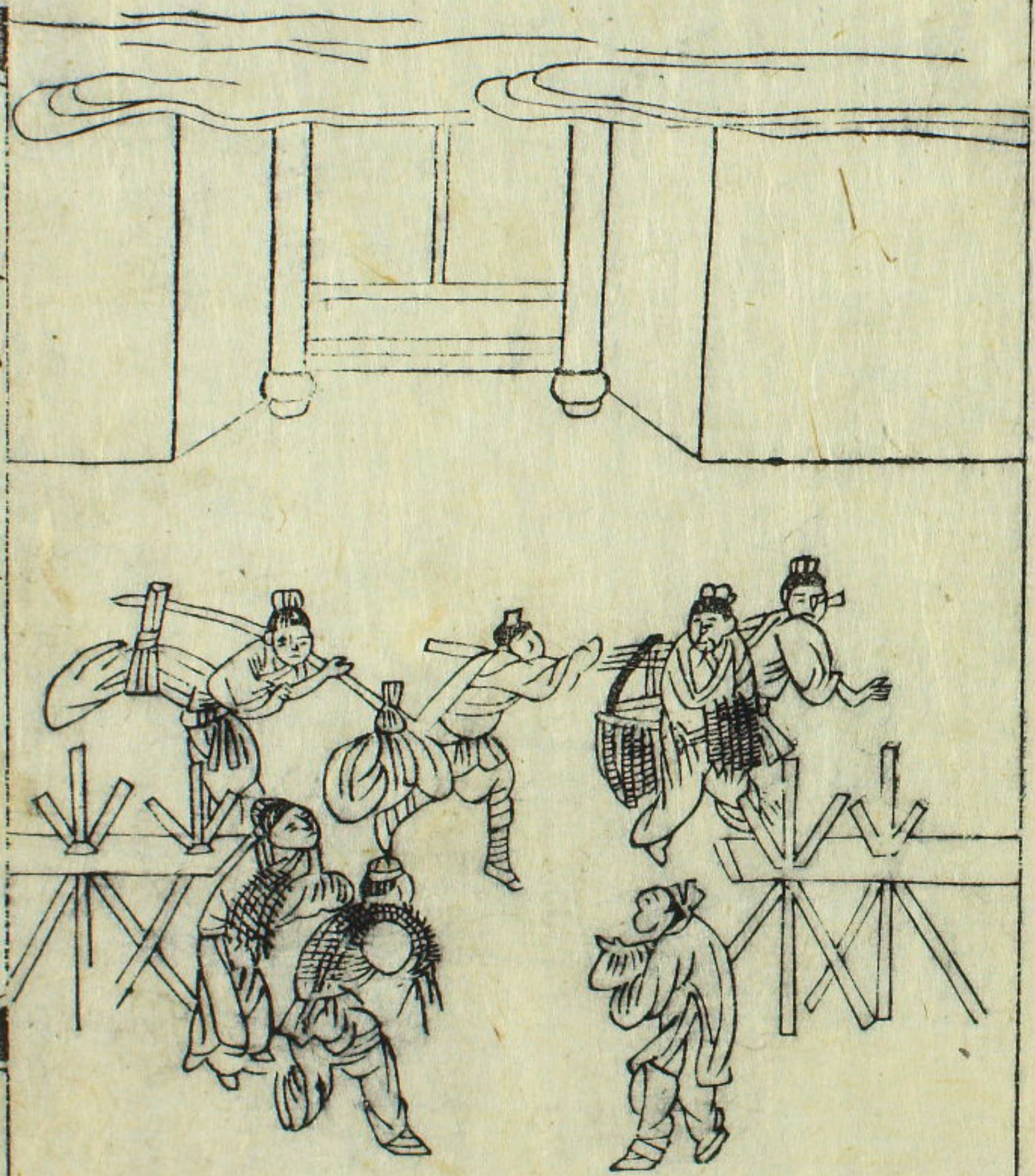
王珣



嘉靖時御史王珣巡按三吳舊例獲盜至三百人者陞四品俸珣部中所獲至數千人按之多非實公盡釋去曰我不敢爲官而陷人也任滿公陞左都御史後四子皆登進士

가경의적의어소왕순이삼오르흐는순찰할시이적의국법이도적삼백이은은잡으면스품벼슬의오르느천케라이적왕순의부하의잡힌도적이슈천여인이라이의모다히고함의날이만히상실함여의미흔적무슈흔지라이의모다노하보닉여왕년엇지벼슬을위함여사름은상히오리오흐더니그후공이과만함여좌도어소로승품함고또공의네아들이모르진스급제함여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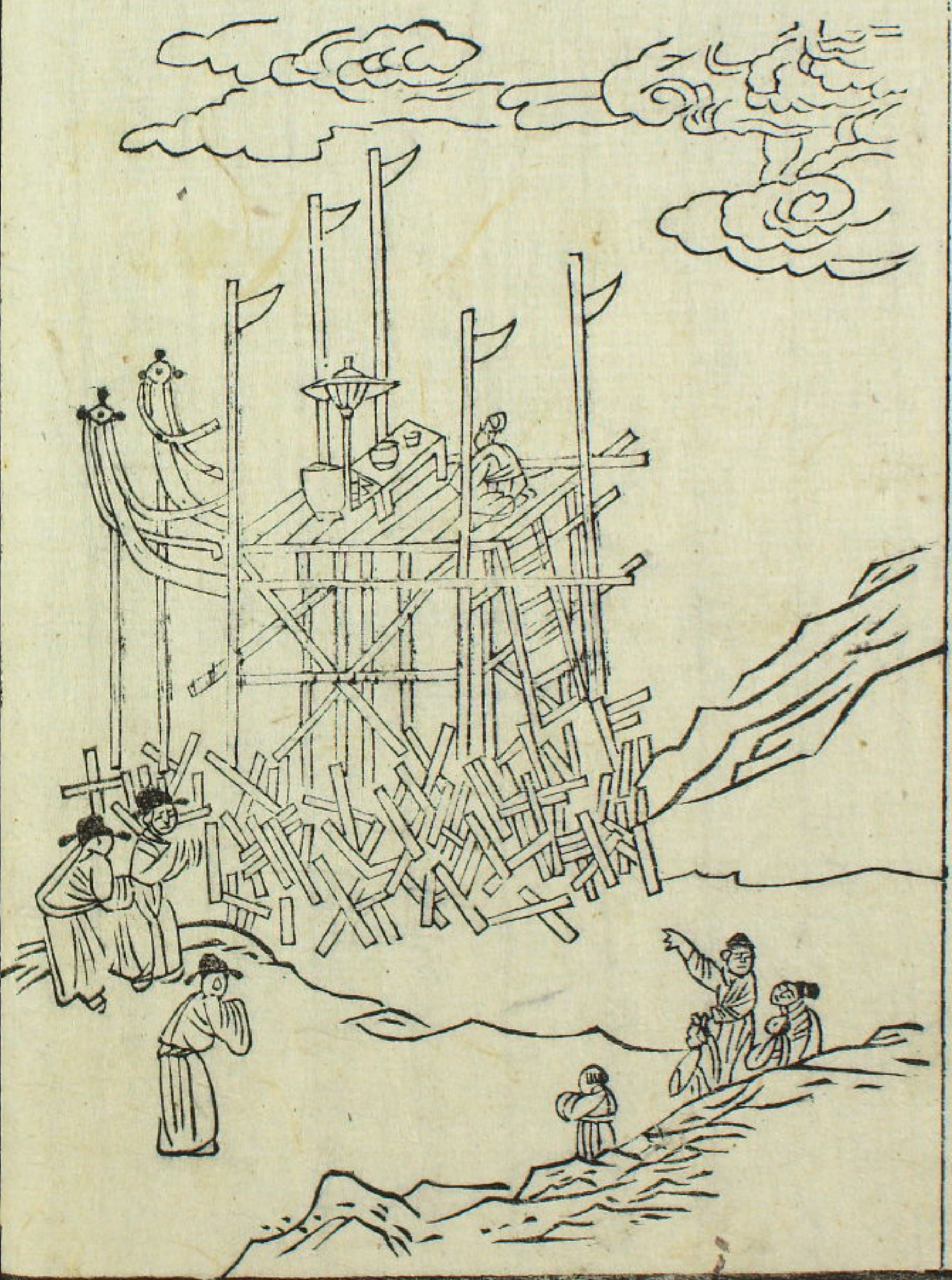
張淇



宋張淇知江陰軍吏盜錢三百萬二十年矣淇發其奸捕
繫數十人轉運使趙廓謂曰此應賞典願竄諸盜錢吏吾
以聞於朝淇慘然曰殺人以求賞可乎悉召諸吏諭以償
錢則赦罪不然死矣吏親屬聞之爭出錢以償十日而足
乃推同盜錢二人已死者爲首餘悉貸不問廓愧而歎曰
公長者非吾所及也

송나라 장공이라 하는 사람이 강음에서 벼슬을 하였실시 그
아전의 무리 관권 삼백 만을 도둑맞고 여이의 슈십 년이 넘
어서 되 발각하지 아니하고 여사더나 장공도 임하고 그날을 적발
하니 범용은 아전이 슈십인이라 천은 스도 학이 날니와
이케 모든 도둑들은 아전을 드스려 중죄를 더으면 맛당이
니르노 배조정의 알외리니 배의 중은 상권을 어스리
라하거늘 장공이 참후히니와 외로 어스리니 어스리니 죽어 상
을 구하리오하고 모든 아전을 불러 호유하와 외로 너희 관권
을 범용은 미그죄다 이 죽을지라 이케 만일 돈을 드려여 슈
히 감함은 진디니 또 한 맛당 이그 죄를 스하리라 하니 모든 아
전의 조수 이말을 듣고 죄마다 돈을 내어 드로 아보치니 열
흘이 차지 못하 여슈이의 초는 지라 이그 무리 중의 이왕두
죽은 사람으로 배괴 슈를 지어 죄를 미루고 그 남은 여러 사람은 모
다 죄를 스하 여 못지 아니하니 도학이 부스그리고 단 부하와 외
공은 진주량지라 나의 맛출비아니라 하더라

曾櫻



天啓丙寅歲晉陵大旱自三月至五月不雨畊插未舉禾種焦枯民心惶惶時太守曾櫻號二雲潔己愛民祈禱甚虔延師築壇率縉紳士民晨夕叩禱天心不回公爲夜臥不寧忽忽若夢見神告曰明晨有德行老人鬚髮如雪進西門城邀以禱雨不應舉火焚之雨必足功只在其一傘耳公昧旦卽遣人伺於郡西門果見老者鬚髮皓然延至事以隆禮懇代吏民請命於天老者竦然謝不敏公實以神明之命老人感公誠切願捐身力禱赴壇焚香告天誓不飲食自限三日不雨卽赴火四圍積薪踰其壇老人竟日百拜次日腹枵力疲叩頭而已第三日寅刻忽生黑雲俄傾四合大雨盈尺萬民歡呼公拜酬老人問以平生積何功行一傘有何異處老人答曰愚民未諳詩書無所知

識但生年八十惟敬天地神明朔望節候必焚香叩拜所
挾一傘遇出路便溺必張護身母令穢觸三光耳公爲肅
然增敬厚遺送歸老人姓羊名稔荆溪之北鄉人也

晉永和間一童子年七歲父母俱臥病童子夜就星月下
悲啼懇禱爲父母祈壽如是經月不輟一夕父母夢神示
曰汝夫妻數當盡賴有孝子爲爾增壽矣

던계병인쇄의딘능쓰히크게가물어삼월부더오월의니
르히점우도오지아니하니능히밭갈아시르지못하고이왕시
문화셔는라고마르느니라민심이황황하여조석을보컨리
못할듯하더라티슈중이이몸가지오미결빙하고빙성을
스라응더니이러듯한저를보고정성을다하여비르르
세도스르러쳐하여좁히단은므고스민을거느려주야로

머리조아과도하되려니움이두루혀심이업느니라공이바음을
다응여심신이편느라못하더니흔연비몽몽간의신이이
닐니와라니일시벽의맛당이빙발노인이이셔흔우산
을가지고셔문으로도러올거사나공경도이쳐응여비르르
되요힘이업거든불노써슬오면비오기바드스흔지니그
공덕이다만그우산의이느니라흔거늘놀나셔여즈시사
름을보니여셔문의기느리더니과연흔빙발노인이니르
거늘마자도라와후례로쳐리점하고르려이비르어귀우
하기르려쳐응니노인이이화송하여저조업슴으로써양하거
늘공이신명의를쳐치문고흔되노인이공의정성을감동
하어모음르비라고힘을다하어귀우하기르려라하고단의
올나향은르귀우고하늘외고하어비오기천의음식을먹

지아니러 밍체하고 삼일을 비어 배오지아니하면 불의나
 아가 죽으리라 하. 여단을 들너 쇠뿔을 찌고 날이 맛도로 박
 번이나 찢고 하. 더니 그 아든 날은 백골프고 근 벽이 쇠진하.
 여다만 머리 큰 조을 썬이러니 제삼일인 시름의 홀연스
 면의 거름은 구름이 날며 큰 비 붓드시오니 거의 혼자 이 남은 지
 라 만민이 즐저 부르지. 머공이 초흔 절하. 여무슈이 샐레하.
 고인하. 여 무려와 글다 형성의 무손 공력을 이러 드시 췌. 하. 시
 며 초저 우산은 무손과 이 흙아 잇노. 노인와 신성은 산촌우
 민이라 시켜를 아지 못하. 고지식이 업스오나 신년 팔십의 오
 직년 지신 명은 공경하. 여 삭망과 절로 일의 반드시 분향
 네 비하고 가진 바 초우산은 길의 단닐 제오즈. 송을 두려
 하. 면 반드시 배푸러 모은가 리어 더러운 귀운으로 췌이르
 일로 성신 쇠책이 지아니 케하. 미라 하. 니 공이 더욱 속연이 공경
 하. 고 두더이 주어 보나. 라 노인의 성은 양이 오 명은 념이니
 형제 부향사 름이러라.

단나라 영화 년간의 혼아 희잇스나. 나히 칠체라. 부퇴일시
 의 병들어 누엇거늘 그 아희 밤마다 들과 별아리나 아가 온
 며 부모의 장슈하. 기를 빌어 이러 드시 들이 념도 루구치지아나
 하. 더니 일. 은 그 부퇴 씬의 신이 고하. 여와 너희 부체 맛당
 이 슈디. 할 배어 들네 효종의 정성으로 인하. 여 슈를 더으니
 라. 하. 더니 그 후오리 지아니 하. 여 병이 낫고 부퇴 장슈하. 나. 라

楊詣



楊詣字公儀知滑州清正仁慈夜報河波詣恐害民躬率
 官役往塞之正寤急聞見一白髮老人舟載楫往來佐
 助公大喜意是豪民水定天曉詢之不見

양예의는공의니의인이척정인스흔지라이근즉화르
 쥬스르하엿더니이른은밤의드르니하쉬터져형외급하
 다흐거늘양예백성이하로올가두려즉서관속은드
 리고몸소나아가러진곳을막을시물역이어되워형외
 의급하더니흔연흔백발노인이잇되백의집흔시고
 와오니흐며막는지라공이크게거헤오되이반드시백성
 중호걸이라하엿더니이미물을막고날이서미고노
 인은츄즈니드시보지못하르지라이는신인이양예의정
 심은감동하엿가마나도음이라

馬默



成武馬默知登州宋制沙門島罪人官給糧者三百人多
 則取投海中默奏神宗言朝廷既貸其死今以溢額而投
 海有傷皇恩乞查發配年久無過者移登州上納之著為
 令自此全活無算默無子一日正晝見絳幘雲帔者挾二
 男女自天而下曰我奉天符以汝移沙門島罪人事俾續
 其嗣俄乘雲去遂生男女二人皆聰慧默仕至都轉運使
 송나라마묵이라하느사름이드츄고을원으르하엿더
 니송나라법의스문도의귀향보닌죄인으르관가로냥식
 주어먹이느권취삼백인이라크슈의넘으면반다희너
 허죽이느권레라마묵이신종하알외여왕조정어임의
 죄인이죽기르면하여찬비하여사거늘어제크슈의넘기르보
 다희너허죽이면이느형벌으르스함리오조하환은

이손상공은 지니 청공 권리 이후는 조체히 스실 공여 청빙공년
 죄오리고 죄적은 조를 갈히여 등주로 음기미 5공을 가하느이다
 공니 상이 허락하샤 인공여 췌법테를 숨으라 하신니 일노부
 터 온천이 슬온적구슈를 아지 못하느니라 마묵이 일즉 무조
 하느니 하로는 비구주의 공은 브러은 관 쓴 천 관이 두아희 남녀를
 압희 안고 구름속으로 노려와 마묵이 려느니라 활니 하늘의
 명은 신문을 처를 밧앗시니 날느니 되네 일즉 스문도 죄인은
 죽지아나게 하여 시미구금덕으로 내조 손을 잇게 하라 하신니
 이러므로 두아희를 조노라 하고 말은 마초 민구름을 타고 조
 라가더니 구후과연 아들과 딸을 낳느니라 다 초명여오하
 고 마묵이 초하느니 벼슬이 도천은 스의 니르러 터라

袁了凡



袁了凡自述余童年喪父老母命棄業而學鑿謂可以養生可以濟人且一藝以成名爾父夙心也後余在慈雲寺遇一老者修髯偉貌飄飄若仙余敬禮之語余曰子仕路中人也明年卽進學矣何不讀書余告以故曰吾姓孔雲南人也得邵子皇極數正傳數該傳汝予引之歸試其數纖悉皆驗余遂起讀書念孔爲予起數縣考童生當四十一名府考七十一名提學考第九名明年赴考三處名數皆合復爲卜終身休咎言某年當補廩某年當貢貢後某年當選四川一大尹在任二年半卽空告歸五十三歲八月十四日丑時當終於正寢惜無子余備錄而謹記之自此以後凡遇考校其名數先後皆不出孔公所懸定者獨算余食廩米九十一石五斗當出貢及食米七十餘石屠宗師卽批准補貢余竊疑之後果爲署印楊公所駁直至丁卯年始准貢連前食米計之實九十一石五斗也余因此益信進退有命澹然無求矣貢入燕都留京一年歸遊南雍未入監先訪雲谷會禪師於棲霞山中對坐一室凡三晝夜不瞑目雲谷問曰凡人所以不得作聖者只爲妄念相纏耳汝坐三日不見起一妄念余曰吾爲孔先生算定榮辱死生皆有定數卽要妄想亦無可妄想雲谷笑曰我待汝是豪傑原來只是凡夫問其故曰人生安得無數但惟凡人有數極善之人數固拘他不得極惡之人數亦拘他不得汝二十年來被他算定不曾動轉一毫豈不是凡夫余曰然則數可逃乎曰命自我作福自己求詩書所稱的爲明訓我教典中說求功名得功名求富貴得富貴求

男女得男女求長壽得長壽夫妄語乃釋迦大戒諸佛菩薩豈誑語欺人余進曰孟子言求則得之是求在我者也道德仁義可以力求功名富貴如何求得雲谷曰孟子之言不錯汝自錯解了六祖說一切福田不離方寸從心而覺感無不通求在我不獨得道德仁義亦得功名富貴內外雙得是求有益於得也若不返躬內省而徒向外馳求則求之有道得之有命矣內外雙失故無益因問孔公算汝終身若何余以實告雲谷曰汝自揣應得科第否應生子否余追省良久曰不應也科第中人類有福相余福薄又不能積功累行以基厚福兼不耐煩劇不能容人時或以才智蓋人直心直行輕言妄談凡此皆薄福之相也豈宜科第哉地之穢者多生物水之清者常無魚余好潔和氣能育萬物余善怒愛為生生之本忍為不育之根余矜惜名節常不能舍已救人又多言耗氣喜飲爍精好徹夜長坐而不知葆元毓神皆空無子其餘過惡尚多不能悉數雲谷曰豈惟科第哉世間享千金之產者定是千金人物享百金之產者定是百金人物應餓死者定是餓死人物天不過因材而篤幾曾加纖毫意思即如生子有百世之德者定有百世子孫保之有十世之德者定有十世子孫保之有三世二世之德者定有三世二世子孫保之其斬焉無後者德至薄也汝今既知非將向來不發科第不生子之相盡情改刷務要積德務要包荒務要和愛務要惜精神從前種種譬如昨日死從後種種譬如今日生此義理再生之身也夫骨肉之身尚然有數義理之身豈不

能格天余信其言拜而受教因將往日之罪從今盡情發露爲疏一通先求登科誓行善事三千條以報天地祖宗之德雲谷出功過格示余令所行之事逐日登記善則記數惡則退除且教持準提呪以期必驗余初號學海是日改號了凡蓋悟立命之說而欲不落凡夫窠臼也從此而後終日兢兢復覺與前不同前日只是悠悠放任到此自有戰兢惕勵景象若在暗室屋漏中常恐得罪天地鬼神遇人憎我毀我自能恬然容受到明年赴部考科舉孔先生算該第二忽考第一其言不驗而秋闈中式矣然行義未純檢身多誤或見善而行之不勇或救人而心常自疑或自勉爲善而口有過言或醒時操持而醉後放逸以過折功日常虛度自己巳歲發願直至己卯歲歷十餘年而三千善事始完時方有事入關庚辰南還始及回向遂起求子願亦許行三千善事辛巳生汝天啓余行一事隨以筆記汝母不能書每行一事輒用鵝毛管印一紅圈於曆日之上或施貧人或放生命一日有多至十餘圈者至癸未八月三千之數已滿九月十三日復起求中進士愿許行善事一萬條丙戌登第授寶坻知縣余置空格一冊名曰治心篇晨起坐堂家人攜付門役置案上所行善惡纖悉必記夜則設卓於庭效趙閱道焚香告帝汝母見所行不多輒頻蹙曰我前在家相助爲善故三千之數得完今計一萬衙中無事可行何時得圓滿乎夜間偶夢見一神人余言善事難完之故神曰只減糧一節萬行俱完矣蓋寶坻之田每畷二分三釐七毫余爲區處減至一分四釐

六毫委有此事心頗疑惑適幻余禪師自五臺來余以夢告之且問此事宜信否師曰此心真切即一行可當萬善况合縣減糧萬民受福乎吾即捐俸銀令其就五臺山齋僧一萬而回向之孔氏算余五十三歲有厄余未嘗祈壽是歲竟無恙今六十九矣汝之命未知若何即命當榮顯常作落莫想即時當順利常作拂逆想即現頗足食常作貧窶想即人相愛敬常作恐懼想即家世望重常作卑下想即學問頗優常作淺陋想遠思揚祖之德近思蓋父之愆上思報國之恩下思造家之福外思濟人之急內思閑己之邪日日知非日日改過一日不知非即一日安於自是一日無過可改即一日無步可進天下聰明俊秀不少所以德不加修業不加廣者只為因循二字擔閣一生雲谷禪師所授立命之說乃至精至邃至中至正之理其熟玩而勉行之毋自曠也

원고범이라 함은 사름이 스스로 평성인 줄은 과 록함 여 그 아
 된 일을 평계함 나 기사의 마오 시 되 너 어려서 어 머 친 은 너 희 고 노
 되 날은 평은 여 함은 브 리 고 의 슬은 비 호 라 함 시 며
 또 너 사 디 의 슬은 평히 함 면 가 히 양 성 도 함 너 거 시 오 또 가
 히 사 름의 죽으 물 건 진 거 시 오 또 함 사 름 아 함 가 지 조 의 도
 를 너 워 인 함은 나 너 오 미 네 부 친 의 생 함은 모 음 이 라
 함 시 거 는 너 스 온 스 의 잇 서 의 슬은 공 부 함 너 나 마 참 함 노
 인 함 만 나 니 또 함 슈 염 과 아 름 드 온 용 되 또 함 여 신 선 의
 품 치 잇 는 지 라 날 드 너 너 와 근 구 되 는 버 슬 길 의 잇 는 사 름
 이 라 너 년 의 함 교 의 나 아 같 거 시 어 늘 어 지 글 너 지 아 나 함 노

흥거늘니 소유를고하고그성명을물으니천성의근오
 디나의성은공이니은남쓰사람이라알즉소강철리의
 회공구슈법을어엇더니이제귀맛당이츠의계권흥리
 라흥거늘니의흥여이쓰러도라와구슈법을시험흥니체
 체흥닐이다맛는지라너드드여큰너를상각을너일시
 공션성이또날을위흥여과슈를풀어보니척음분음
 시취의는일흠츠레스시법으로췌히고본흥시취의는아흠치
 로췌히리라흥더니및명년의삼츠응시호미고일흠츠레
 모다여하부절리이라드시종신길흥장을점복흥니닐니
 시되아모희의향교의들고듬미구십일척오두를먹은후
 아무희의공성이되여경스로가고흥아모희의버슬흥여
 스천근의흥고을원을흥고이소이쓰스지두히반의과
 만흥여오고오십삼체되던히판월십스일축시의맛당
 이경침의척죽을지니평성의급제흥지못흥고또흥
 무스흥리라흥거늘니초과로흥여츠레로상모흥니구후
 로미양시취의일흠츠레와츄방흥년죄모라공션성의
 청흥바슈의버척나지야니흥되다만듬미구십일척오
 두를먹은후의공성이되리라흥년말이맛지아니흥여겨
 유철십여척을먹은척의공성을보흥여스는지라너구구의의
 심흥더니구후과연사람의논박흥비되여공성의보리맛흥
 고구후정묘년의니러비로소공성의보흥니구제야듬미역
 은췌천후합흥여구십일척오두라이러므로더우진퇴
 의병이이다흥여드시구흥는버어브는지라기시의공성의
 로정스의드러가머무런지일년만의남으로도라갈시

마츠고운공천수를츠츠되하산중의처만난지라흔방의뒤좌흔
 여삼쥬야르르니르시니거동이담연흔야마치무심흔사람르
 흐니은공이무려와르되적범인이이성이지경의너지못흔는바는
 다만망녕된생각이처로얼키미라이케그되는사흔을안적시
 되망녕된생각나물일흐도못보리로다흔거르니공천성의
 슈로췌고흔여와르영육과스성이정흔흔취이스니망상을니
 여도플뒤업슬지니이러므로동심리아니흔옛심이라흔니
 은공이니말을트우쳐와르니너를아로미호걸의사람이
 가흔옛더니진뜻흔낫범부로다흔거르니그연고르르니은
 공와르사람이엇지정흔흔취업스리오마는오직범인의게취
 잇는니극히어진사람은슈와팔지감히구속지못흔고크히
 소오나온사람도또흔구속지못흔는니네이시변스이의취
 공천성의정슈만밋고조골도동념리아니흔니엇지범인의
 아나리오흔거르니또무려와르그리흔면슈를가히도마흔리
 잇가흔니선시와르명과부기부비작이니넛클의너은
 말이심히버려은지라우리불가설범의르외스되공명
 을구흔면공명이니엇고부귀를구흔면부귀를어스모스
 식을구흔면스식을어스고장슈를구흔면장슈를어스
 으리라흔옛시니적망녕된말은척가의큰경제시너
 체불보슬이엇지망녕된거짓말노사람은속이시리요
 흔거르니또은오디명지너르사되구흔크어스는다흔시나이
 는그몸의이스는거슬너르시미나인의와도던은가히히므로
 구흔여어으려니와공명과부귀는남의게이스는비나엇지
 임의로구흔여어으리오흔니은공와르민은의말습이르르지

아니 커늘 데스스로 그릇히 석함 엿도 다 각 조의 말슴의 닐 너
 시되 모든 부이그름을 너나지 아니함니 그름을 조처하되
 미감동함여 통타아닐 거시엄다함시나 만일 그름을 님가
 구함면 어지흔 곳도 덕인의 생인 이리오 또함은 공명부귀도
 을지니 이른바 님외 쌍득이요 만일 몸은 두루 현안으로
 슈히어리 아니함고 다만 거츠로 구함즉이니 이른바 님외로 쌍
 실함이라 함고인함여 무려와 공현성이 너의 종신을
 점고함여 시미구취어더함여 거늘의 실노 췌고함니 언공
 아람 데스스로 해아리 거늘가히 급제함염즉함여 또가히아
 들은나 함즉함여 거늘의 오리 생각함다 가큰오리
 과함는 사름은 리적복상이 잇거늘나 본이 박함고 또함
 공과함은 맛하복을 두리이지 못함고 점함여 버요호

은견디지 못함여 사름을 용남지 아니함고 함즉 조와 지혜
 로써 사름을 더너 부르며 몸이 곳으며 힘은 실이 착함 체함야
 사름은 망녕되이 말함여 가반야이의 논함니 이모도 복
 의히로온나이라 어지과거함염즉함여 또스히 걸어야 초목
 이무성함은 물이 맑으면고기엄다함거늘나 그러리야니
 함여 점음함은 기르도함함여 귀인이 화함야 능히 만물
 을양함다함거늘나 그러리야니 함여 미양성우기르
 도함함여 저의함는 몸은 심함함는 근본이 유잔인함
 몸은 심함함지 못함는 장본이 어늘나 그러리야니 함여
 능히 거스르니여 사름을 구제디 못함여 또언어르만함
 여 귀인은 모손함고 수를도함함여 정신을 소삭게함고 또
 바름은 시와 안젓기르도함함여 천기르본전리야니 함니

이든 맛당이 무즈흔 과상이요 그나 문과악이 오히려 허다하
여니로 헤지 못하노라 하니 운공왕이 님은 다만 과거와 조
식만의 논흔 비아니라 쇠상의 천금가산을 진일자는 일
정천금이 쓴 인물이 오백금가산을 진일자는 일 정백
금이 쓴 인물이 오글머죽은 자는 일 정글머죽은 만흔
인물이 나하늘이 불과 제인물은 뜻라 식이 식씩이 이라
어지 일호나 다른 의식 이스리 요조식 나스기로의 논컨
다 백되를 누림 덕이 이쁜 자는 일 정 백되의 조손이 이
쇠집을 보천흔 거시오 열되를 누림 덕이 이쁜 자는 열되의
조손이 이 쇠집을 보천흔 거시오 슈삼되를 누림 덕이 이쁜
자는 슈삼되의 조손이 이 쇠집을 보천흔 거시오 그췌쳐 무
후후자는 덕이 지극히 박하 사람이라 네이그름을 알았
시니 이제로부터 이천과거 못하 상을 고쳐 과거흔 과상을 만
들며 무즈흔 상을 고쳐 유즈흔 과상을 만드러지니 이네
음으고 쳐히음가의 이쁜 비나 이 후로는 이천 나름으러 쳐
부되 정다하거름 힘쓰며 정시은 아스거망 되이 쳐버리
아니 문 힘쓰러지니 이천의 중그르즈흔 나름은 어 췌죽은 사람
으로 아라 천식으로 부치고 후스는 오날 식로 이다 시은
사람으로 아라 온갓 나름을 다 어질게 하음면 이의리의 몸
으로 저 시은 힘이나 이의리의 몸으로 췌어지하늘은 도로
혀지 못하리요 하거름 나크게 쳐드라 그말을 신히음은 시
은 여천일의 지은 허물을 음냈드려니 여나스치고 치며 조
글은 온녀하늘외고하 여몬적 등과하 거름 구흔 서찰흔 날
삼천가지로 하음 여더지 조종의 덕가 남기름 명외하

은공이 또 공과 벽이라 하는 처이니 여남을 주고 남노는
 여공의 일허는 바를 낮추기로 하는 처이니 남의
 주상나흔 두고 악한 나쁜이 주주상나흔 덜어 주는 다과
 큰 계교는 계하여 또 죽게 된 이를 큰이 처그녕 허름을 바게
 한니 이후로 중일공은 여더우천과 못지아나쁜 처드는
 지라스연 차그념하고 가다듬아 어두은 짐승과 은근한 키이
 쇠도스스로 띠지키신 죄를 얻은가 두려우며 사름이 남을
 뉘어 한겨나날을 회방을 만나도니 능히 용남을 여박
 는지라 명년의 이르러 한교의 나아가 응시하니 공선성의
 슈의는 들쳐로 섰히리라 한 여더나 지금의 홀연이 체일노
 섰혔스니 그말이 맛지아나 한미오또가을 회시의 입적
 한니 이는 공선성의 슈의 여번이라 이르므로 더우미어
 음가지오미동초한나오히려의러 한 오미산실 처 못
 한며 몸은 들트구미크로미만흔 지라 호가 착한 나를 보아도
 한음미이 날니 지 못 한며 호가 사름을 구제 한 여도 마음의 상
 히스저호고 후스스로 힘써 착한 나를 노라 한다가 이비
 로는 그 큰말을 만히 한며 후천세의 조심 한다가 처 한
 후의 방다 한기도 한여종이러 트한 허물 이 착한 나를
 감한 미허송 한 나날이 만흔 지라 이러므로 착한 나날이 처스
 지 못 한 여괴스년으로 부터 발원 한 여선으러 괴묘년의 이르
 러삼천가지 착한 나날이 비로소와 천한 지라 그후 정진년의
 드사아들 구한 모음은 나 여도 삼천가지 착한 나를 발원 한
 여더나 신스년의 나날 나흔 지라 기시의 삼천가지 나를 한
 한천의 한가지 신 한 한 단으로 주시기로 한고 너의 모친은

은공이 또 공과 벽이라 하는 처이니 여남을 주고 남노는
 여공의 일허는 바를 낮추기로 하는 처이니 남의
 주상나흔 두고 악한 나쁜이 주주상나흔 덜어 주는 다과
 큰 계교는 계하여 또 죽게 된 이를 큰이 처그녕 허름을 바게
 한니 이후로 중일공은 여더우천과 못지아나쁜 처드는
 지라스연 차그념하고 가다듬아 어두은 짐승과 은근한 키이
 쇠도스스로 띠지키신 죄를 얻은가 두려우며 사름이 남을
 뉘어 한겨나날을 회방을 만나도니 능히 용남을 여박
 는지라 명년의 이르러 한교의 나아가 응시하니 공선성의
 슈의는 들쳐로 섰히리라 한 여더나 지금의 홀연이 체일노
 섰혔스니 그말이 맛지아나 한미오또가을 회시의 입적
 한니 이는 공선성의 슈의 여번이라 이르므로 더우미어
 음가지오미동초한나오히려의러 한 오미산실 처 못
 한며 몸은 들트구미크로미만흔 지라 호가 착한 나를 보아도
 한음미이 날니 지 못 한며 호가 사름을 구제 한 여도 마음의 상
 히스저호고 후스스로 힘써 착한 나를 노라 한다가 이비
 로는 그 큰말을 만히 한며 후천세의 조심 한다가 처 한
 후의 방다 한기도 한여종이러 트한 허물 이 착한 나를
 감한 미허송 한 나날이 만흔 지라 이러므로 착한 나날이 처스
 지 못 한 여괴스년으로 부터 발원 한 여선으러 괴묘년의 이르
 러삼천가지 착한 나날이 비로소와 천한 지라 그후 정진년의
 드사아들 구한 모음은 나 여도 삼천가지 착한 나를 발원 한
 여더나 신스년의 나날 나흔 지라 기시의 삼천가지 나를 한
 한천의 한가지 신 한 한 단으로 주시기로 한고 너의 모친은

글을 모로므로 다 만부스두점의 부러은 거슬 칠은 여천년
 일스우희씩으니 호가난은 사름을 구제도호며 후식증
 증도슬녀노후니 일러 지니의 후열번이더호를척이잇쳐
 지니계미년 팔월의 니르러의 삼천가지 착호는 날이차는
 저라구월심삼일부터또진수급제호를원은 날희여또일
 만가지 착호는 너을 발원호는 식비호는 년의 니르러과연급
 제호고보쳐씩히지현을호는 실세너공척호는 권을가쳐
 일호음호되치심편이라호고스백의날어나공수르르분서
 천악간의 회호는 너을 세이괴로호고밤이면상타
 을들 의 버리고향은 회척호는 괴고호더니 너의 모친이보
 고문드구얼공은 정괴여와를 우리천의 집의이슬리의
 는서로도아착호는 너을 호기로삼천가지슈회오리지
 아니호여츠거니와이케는 발원호는 슈일만가지오또아중
 의 회호는 너이여비느라어나척의구슈를 초은고호여서로
 근심호더니 일러은 너의 심의 신인 만나일만가지 착호
 너의 초오기어려움을 말호니그신인이와를 곳호여만가지를
 기르리지 아니호여다만백성의구심감호는 너이조히일
 만가지 착호는 너을 당호리라호니이보쳐현의 권답
 구실이호는 너의 두푸른삼니칠호호씩호는 번이어늘니
 도임후의구슈를 감호여호픈스리척호씩으로척호호여
 더니이 너을 너름이라심중의스뭇신인의과장호음은의
 호호호더니마초아은공천시오되산으로조츠오거늘너욕
 말을고호여와를이 너이맛당이맛어먹호호나호니천식와
 이모음이지실노지극호는 천심이라만민이덕을바아사니

다만 이흥은 날이 가히 만가지를 당하리라 하거늘 인능은 여
관 화을 니녀하 여곰 오디 산의 나야가 중의 무리 일 만을 적하
여 먹이게 하니라 또 공선성의 슈의 나른 바 오십삼 체의 중으리라
호미니그히의 일즉 괴도 흥은 비어 비스 되 마춤니 무양하 여이 체
나히 저 십구 체라 네의 명도는 어더 흥지 모로 거니와 설녕부
귀영화를 당하더라 하 여도 상히 초흥 생각을 먹고 또 미
스의 슈흥씩을 당하 여도 마치 찬치 아닌 것 처치 하 여의식이
조흥씩을 당하 여도 구차 흥 생각을 하 여 사름이 공경하
고스라 흥더라 하 여도 항상 공구 흥 생각을 먹고 가 체 높고 명
망이 흥흥을 지라도 항상 느고 천흥 처치 하 여 흥식이 못
덕하 여도 항상 고무 흥 처치 하 여 멀니 조상의 덕을 포장
하 여 각가 이부 흥의 허물을 업고 우흥로 나라는 헤를 갑
고아리로 체집의 복을 지으며 바그로 사름의 급흥 거슬 전지 고
안흥로 몸의 근 생각을 막으 지니 날 마드 근 거슬 처지 모 흥면
면 날 마드 허물을 고치미 오흥로 나라는 거슬 처지 모 흥면
이근 흥로의 믿음을 소기미 오흥로 나 허물을 고칠 거시 업
다 흥면 이근 흥로의 공뵈이즈러 지미니 현하의 총명 흥준 슈
흥사름이 적지 아니 권 마는 몸을 뜻그미 덕 흥이 나루지 못
흥고 공업이 너지 못 흥바는 다 만그리 처하 흥 여 일 심은
보덕 미니 흥고 선사의 큰 흥친 바 명을 고친 다 말이 지극
히 흥흥고 지극히 겁 흥며 지극히 흥코 지극히 흥공 번된 의
리니 맛당이 익이 흥부 흥며 힘쳐 흥흥고 스스로 보리
지 말나 흥더라

葉夢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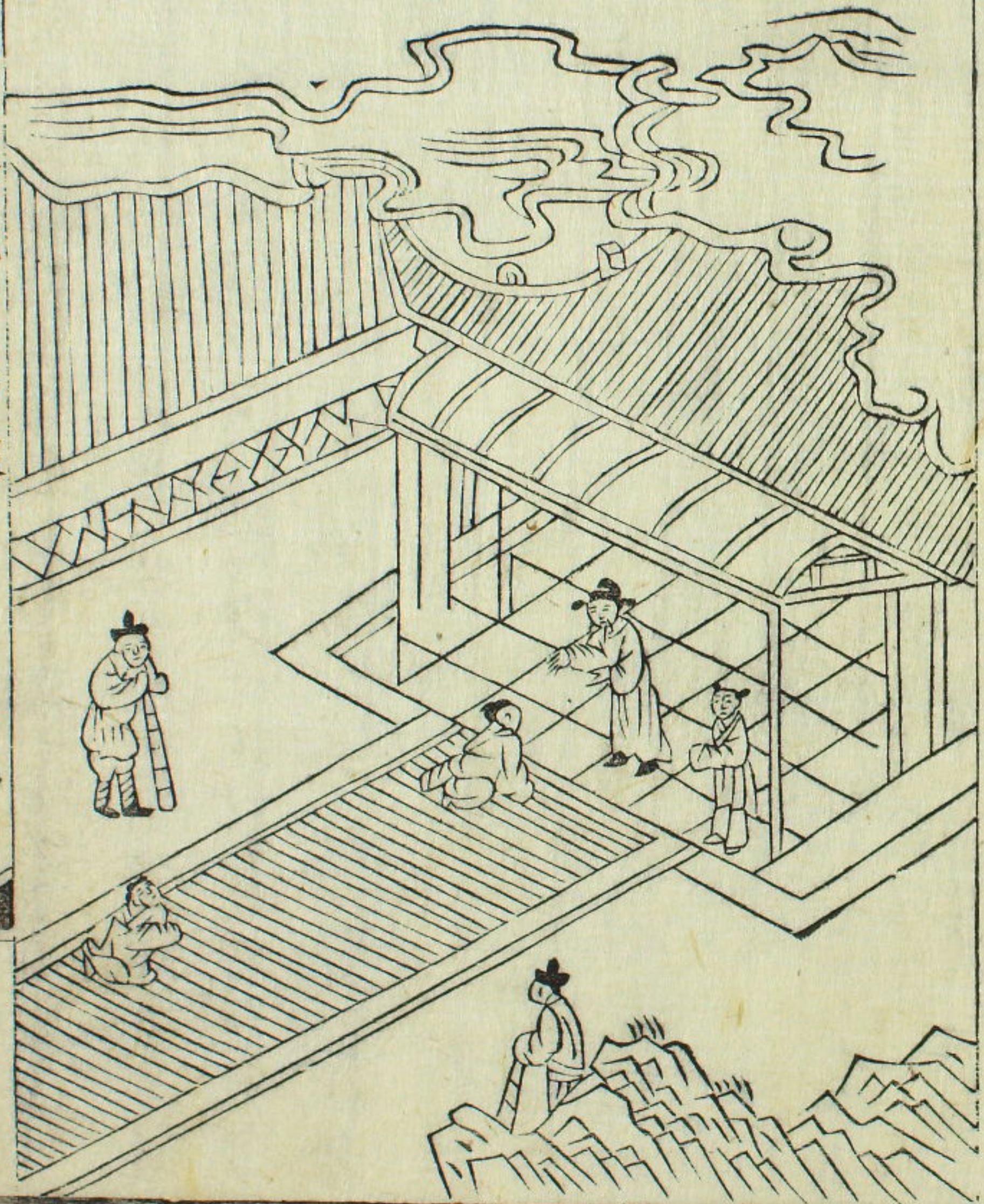


葉夢得在許昌值大水流浮無數公盡發常平所儲賑之
 全活數萬人獨棄小兒無由得救詢左右曰無子者何不
 收養曰人固所願但患歲豐年長即來認去耳公即立法
 凡災傷遺兒父母不得復認遂作空券印給於民凡得兒
 者明書於券付之凡救小兒三千三百餘後官至尚書子
 亦登第官居極品

葉夢得이허창을진구하여서더니흉년은당하여빈성이
 누산하는지라공이상평고의맛힌공식을내어디응한하니
 살년비수만인이라이척빈성이어린아희를브린지무슈
 하여길희가득하여것을공이주제코쳐하되늘길어빈
 지라죄우드려무러와를스식업는사름이엇지거두어기르지
 아니하노죄의죄와를이진실노원하는비오나시절이공

등하고아희장성음면그부되도로츠갈가적하하여슈
 양리못음이다공이의하령하여왈브린아희는그부되
 드시츠지못하리라하고드드여관가로문셔를만드러아
 희거주어기르느빅성음은나칙주어징험케음니이러
 므로어린아희주음저시삼천삼빅여명일너라그후의
 공의벼슬이상셔의너르고고아들이드등과하하벼슬이극
 품의너르니라

劉矩



劉矩爲雍丘令以禮義化民凡有爭訟者至常引於庭提
耳訓誨以爲忿恚可忍公庭波不可入使婦更患訟者感
悟輒各罷去大化其俗民德歸厚此化及獄訟者也夫聽
理詞訟本以爲民乃有任法太過而又不知下情往往堅
持至死者何如謙虛平恕之爲得情哉

누귀옹구현녕이되엇실시네의로워백성이고화하여
므르스정송하는지잇스면뜨른아래희곳가이잇그러달너여
올오디분흥은날이잇거든가히참을거시오관가뜨른은가
히오지아닐곳이니도라가드시싱각하면그르미어브스리
라하니일노인하여송스흥은빅성이쳐마다감동하고
외드라각하러지니큰교해풍속이되고빅성의덕이
두려운뒤도라가니라

祝乾壽



祝乾壽爲崑山令有善政未嘗枉一人遠近稱之嘉靖時
倭犯吳中圍崑山城五十餘日乾壽撫循守禦備至倭人
至攻西門已入闔堵乾壽當矢石立樓櫓欲急發樓上板
堅不可動忽有持斧至者自稱唐聖連發二板雜下火具
壓以巨石倭死者甚衆遂退城得不陷乾壽求持斧者賞
之不得其人土著人曰唐時有卜將軍名聖者葬城西南
隅求其跡果然遂立祠土山後乾壽官至憲司

축구건슈라호는사람이곤산현년이되여형수를어질
게호여호사람도원동계함이업스니원군이칭찬하더
라가평년간의왜병이드러와곤산성은에우니이막
오십여이라건슈막고지희믈지극히하더니왜인이서
무은큰석이의문밋히니른지라건슈시형은므릅쓰고
형누의을나판목을세여도적은치고쳐하되판이곳
어쁘히지못하더니호를연호사람이도치르르들고니르러
스스로랑형이로라닐르며년호여두판목을세히고
화구르섯거느리치며돌노숫느니왜인이죽은지무슈
하더라이의형을보전하고그사람은스스상쥬려할시
드시보지못할지라그사람이고호여와당나라척의부
장군이잇쳐일함음이형이니그무덤이잇거느르드여그산
다호거늘나아가스즈니과연무덤이잇거느르드여그산
우희스다은세우니라그후의건슈벼슬이스현의니르
러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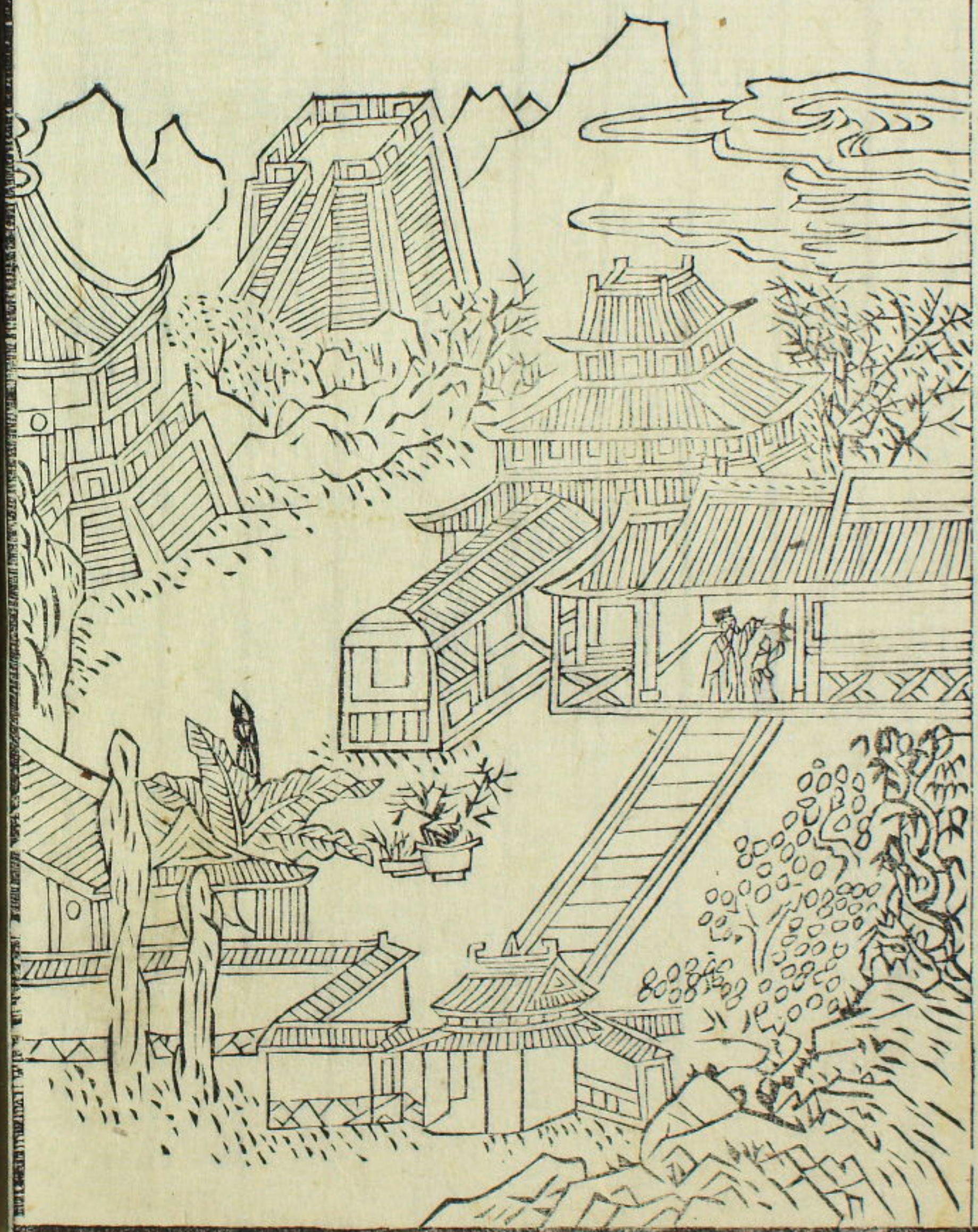
崔廷



魏主以罪徙者多逃乃制一人逋亡闔門充役光州刺史
 崔廷諫曰一人有罪延及一門則司馬牛受向魑之罰柳
 下惠嬰盜跖之誅豈不哀哉魏主從之

위나라 역의 사르미 죄의 범함여 변방의 충군함은 군사
 의 무리나라역 스를 괴로이 먹여 도망함은 저만흔지라
 조정이 근심함여 시법을 지으되 함사람이 도망함면 그
 사름의 원집사름을 모다 군역을 받게함나 괴영주스스최
 정이 간함여 원함은 사르미 죄로 일문이 죄를 받게함
 저스마우의 착함으로 상되의 벌을 받게함여 하해의 형
 인으로 도척의 죄의 연좌함은 지나 잇지스르포지아나라잇가
 함나 조정이 그말을 올리히 먹여 그법을 힘치아나함나라
 스마우뉴하해는 상
 되와도 척의 형테라

郭崇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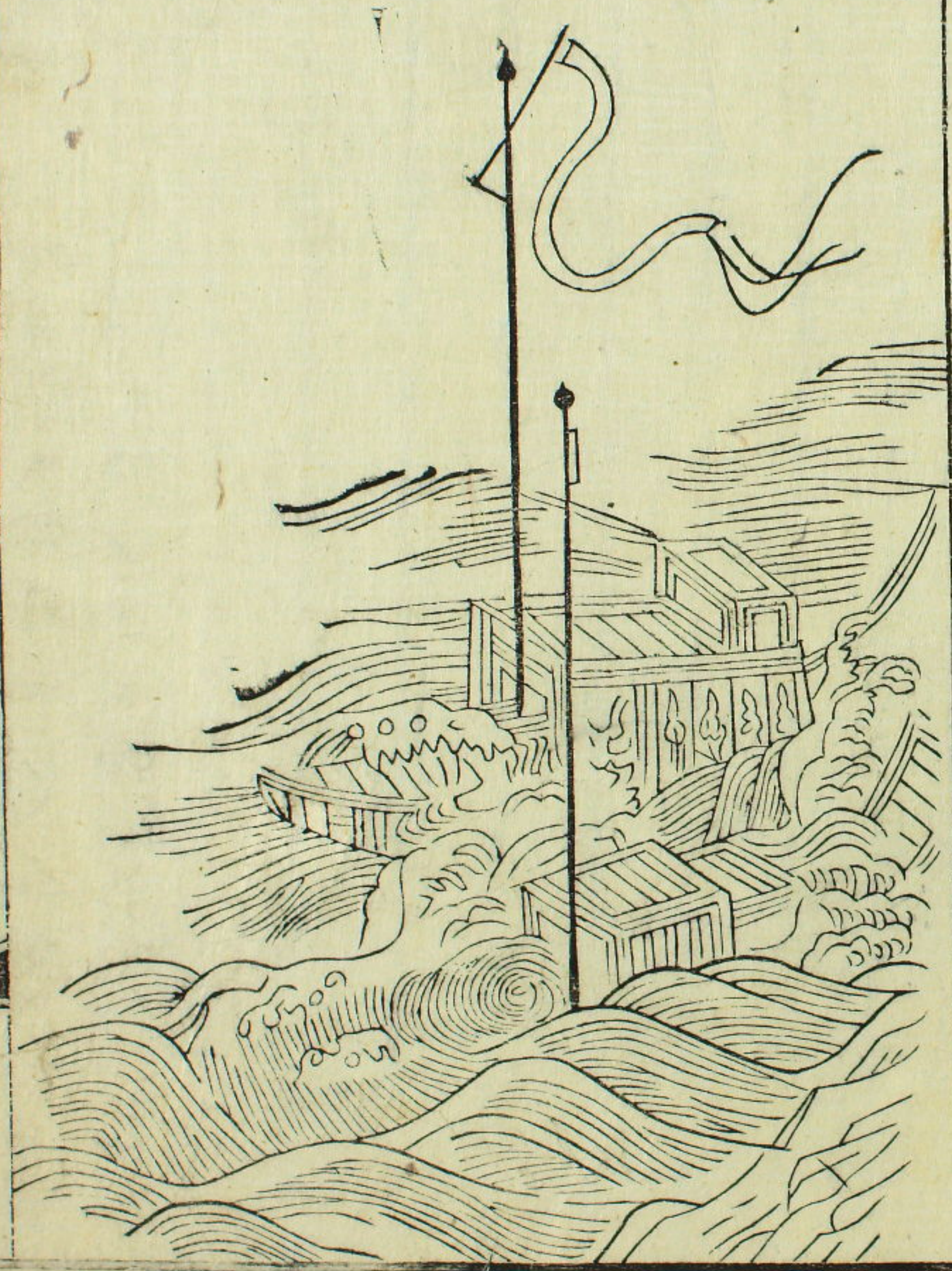


郭崇義鎮河陽於洛中造一大第凡千餘間皆以文梓爲
梁花石鋪地穿池引水築山種樹周設亭臺無不備具約
費白金五千錠次年被召還都暮抵其第秉燭周覽尚未
及徧時朝會期促不容久駐餘罷少憇侵星而出既朝復
歸行至東都乃卒不復再至家人不能居轉售他人

곽승의라는 사람 이하양 절도사로 승역시 낙양 작히
한 큰 집을 지으니 천여 칸이 넘은 지라 모든 처치는 남그로
들보고 화반석으로 뜰의 깔며 물은 그리여 년모슬만 들
고 향을 쓰하되 물만 들며 화이 초는 수면으로 시르고 뒤샤누
각을 팔방의 버러시니 아름답고 화려하여 소입금은 이누
거만의 못가오니 이는 백성을 침학하여 탐은 저물이라고
이듬히의 조정 이부르 시미 경으로 올나 갈시 년노의 그집

의드르니날이미적문지라 초불을 들고적이보라가
 입조고과약이 초박음으로오리 지안타 못함여적이쇄고스
 비의나러나 길의오르니 구집의 모양을치보지 못함여터라이
 미조회고도라오다가 중노의 쇠죽으너 구집의 르시너르지
 못함고그후집사름이 초함능히전이지 못함여타인의게
 도라가니라

韋公幹



韋公幹爲瓊州牧瓊多奇木公幹驅匠採伐鞭撻橫施及
離任具二大舟盡載奇木雜以金銀浮海而歸行未百里
二舟俱沒

의공간이겨쥬모기이되엇더니그쥬히쥬흔남기만흔
지라이의온갓장인은르브러남글버히르시편박이
낭쟈흥고쥬야독쥬흥더니밋과만흥여도라갈
제그나무르르두비의식고금은과히흥자흥흥의
실어브라흐로오더니백나르르치못가쇠흥연이
두빅인시의브람의브르니여파천흥엇더라

陳潔



蜀御史陳潔狼戾自恣其波刑獄專以波巧為能每月斷
 死者百餘人夏暑熱水亭見蟾子懸絲下引手接之即化
 為大蜘蛛嚙其中指痛入骨裏遂拂落階下化為厲鬼怒
 詰不已潔乃以指潰而死

축나라어스버슬흔진결이모길고스오나와우스르결단
 흥미공묘흥고각박흥가로능스르슴으니미익결의죽인
 지백여인이라맛춤더의를당흥여슈각의서피서흥더
 니흔적은버레이외손의드으며즉시화흥여큰거미되어
 손가락을무니압프기씩의스모차져리니라급히덜쳐
 섬돌알려러지며화흥여흥흥큰신이되어진결은보며성
 녀여슈깃더니진결이일노인흥여손가락이씩어죽으
 나라

宋昇



代書

養民官惡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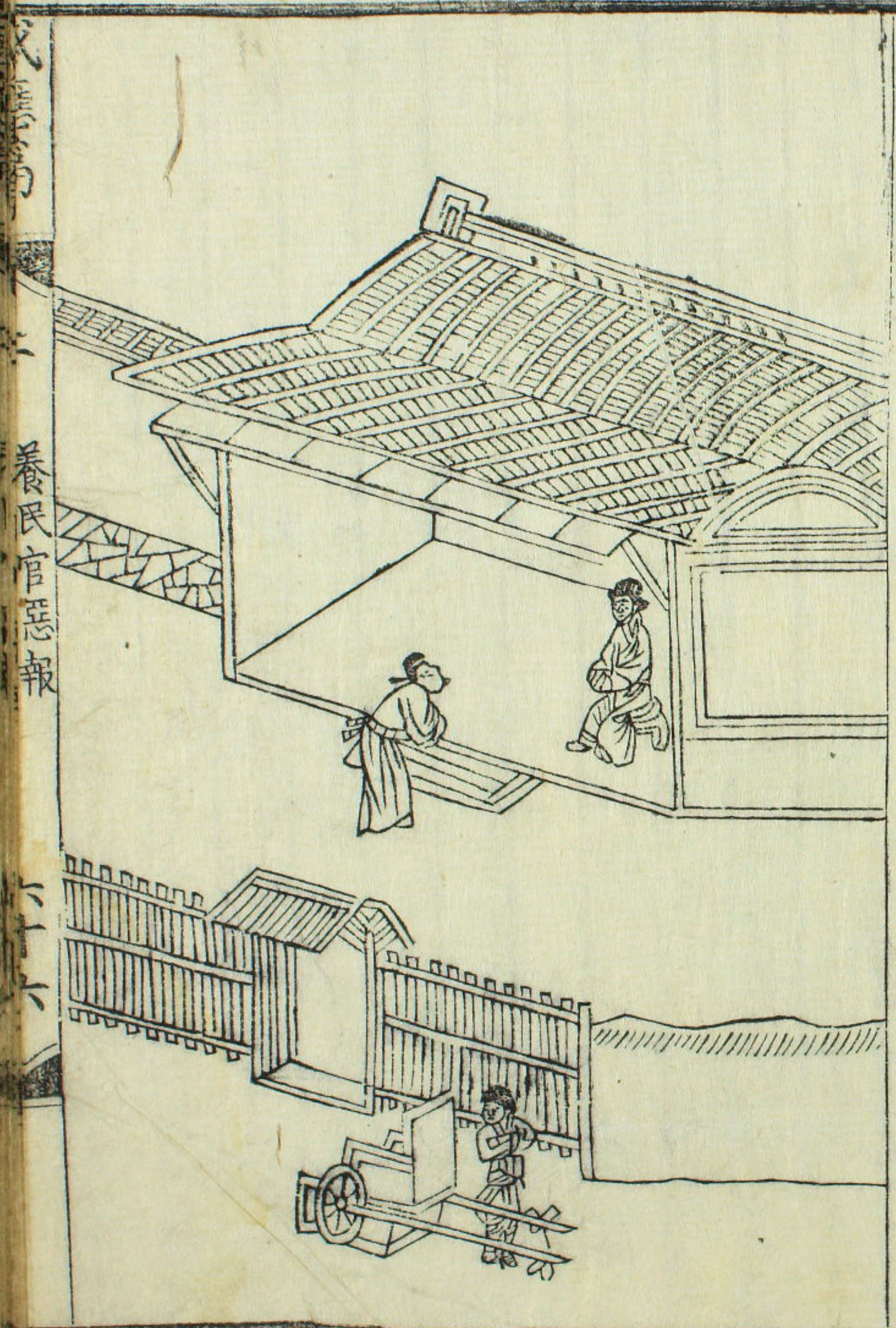
六十四

政和初宋昇為西京轉運專修西內語同列曰速成此役
 賞可立得宮室乃袤十六里殿宇丹漆需牛骨和灰不給
 城外有五代數千人塚幹官韓容獻計發掘焚骨應用宋
 昇然之成州刺史郭璉等迎合其意運判孫貺獨以為不
 可引疾罷去役成宋昇以功除顯謨學士召為殿中監而
 卒韓容繼死不一年昇妻子盡死郭璉疽發於臀有骨不
 可坐鑿以藥取之落三十六骨乃死孫貺病絕至太山府
 獄吏勒入令供滅族狀孫曰我何罪殿上厲聲曰汝發洛
 陽塚幸賞安得辭廡下引人相質身荷鐵枷有卒持鐵扇
 視其面時時揮之扇上皆施釘血流被體乃宋昇也孫歷
 舉去官狀昇屈伏孫夏生

정화년간의 송승이라 함은 사림이 처경전은 신되어서
 권을 중유함은 시동은 드러나와 이역스런 유이 마스면 상
 을 밧으리라 함 여주야 동역함은 시전 각의 단청함 미칠 함은
 제구의 쇠뿔 온 가되 만히 드는 지라 창졸의 구함 미었기 어
 러오므로 근심함 더니 간역함은 관원 한 용이 계교를 드러
 알 성밧고 오린고 송슈삼척이 잇스니 그 썩은 파쓰미 뜻다
 함 거늘 송승이 그 말을 들히니 여그되로 함은 시성 주자 스과
 년이 또 함은 그 뜻은 밧초와 션나 거함 함은 지라 운관 버
 슬 함은 손황이 흘노 볼가다 함 여 벼슬을 버리고 가니
 리 이 밧역스런 밧초 밧 송승이 그 공으로 현모 함은 스전 중감
 벼슬을 함 여 시더니 즈시 죽고 그 처지 함의 죽으며 한 용이 또
 이어 죽고 그 년은 든 종으로 창구의 썩 박여 안치 못함고
 약을 부쳐 벼여니 여 벼 삼십 두 리를 세히고 죽으니라 그

후의 손황이 병든 어죽은 지라 그 혼이 티산부의 나라 귀
 졸이요 어드리며 지축하야 먼쪽 향는드 짐을 올니라
 거늘 손황이 무죄 함은 고흔디 천상의 서 소리를 노
 혀와 사름의 무덤을 파고 상을 드모하니 엇지 죄를 면
 하리오 응고원량아 리로셔 함 사름을 엮어 되면 길
 케 하니 그 사름이 무의외 칼을 쓰이고 귀졸이외 부처로 얼골
 을 칠식 그 부처의 외모 슬만히 박아 치는 곳마다 피 흘너
 일신의 가득하거늘 저세이보니아 곳 송승이라 손황이
 이의 기시 말나드 가 못하야 버슬 버리고 도라가던 송승을
 일히 고하니 송승이 큰 부하는 지라 손황은 무죄다
 여 회심하니라

嚴延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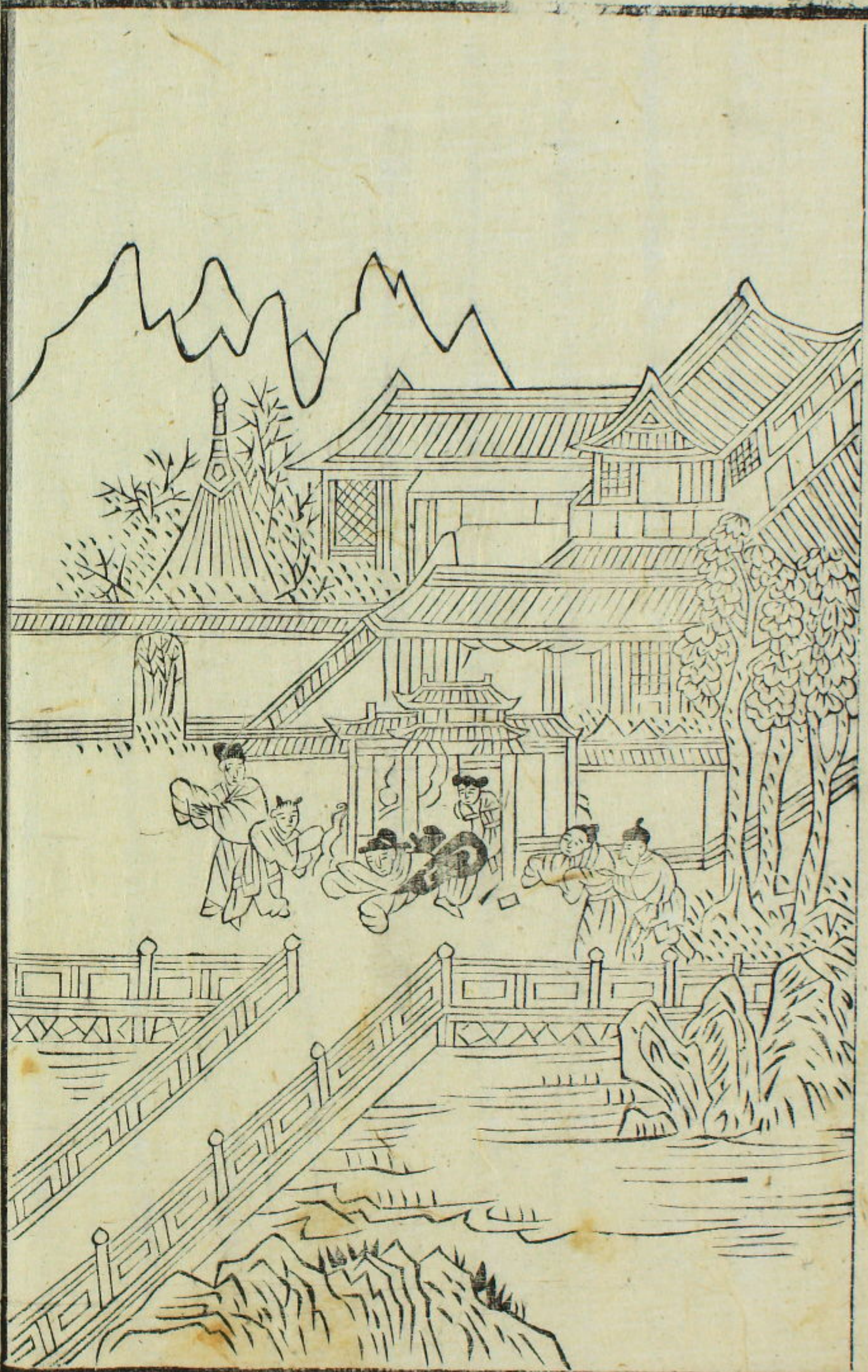


養民官惡報

漢河南太守嚴延年為政陰鷲酷烈曲法深文冬月論囚
 流血數里河南號為屠伯初延年母從東海來至洛陽適
 見報囚母大驚止都亭不肯入府延年免冠謝罪親為母
 御乃入方畢正臘謂延年曰天道神明人不可獨殺吾不
 意當老見壯子被刑戮也行矣去汝東歸掃除墓地以待
 汝遂去未幾為府丞上書驗得怨望誹謗數事坐法棄市
 한나라하람타슈엄연년이정스호미음득고스오나오
 며밍년고호도고하범체르공구히하며플문은
 각박히하니일즉남월의죄인은드스리미살모죽인
 피흐너슈리큰적시이니하람살음이니르기르살르드
 히스빅정이라하더라처음의연년의모치이동히
 로죽츠와낙양의니르러맛참이러듯치적함은보

고도정의머물고즈려고을의드러오지아니하느니라연년이
 나아가과을버셔사죄하고친히고모치을외셔드러왔더
 니저유정조르디니고연년드러너와르년되신명하시니
 사름은호르노죽이미가치아니하느니라노경은다하야자
 성은아들이혀번의죽음을볼줄뜻아니하얏노라히
 흥은자어다너를비리고동으로도라가분모를쓰고네히
 상을기드리라하고드여가더니오리지아니하야마은아
 직이조정의고하되연년이원망고비방하다하야
 저저의버힌비되니라

邵知府



嘉靖中郡守邵某機警有小才多佃魚於民詭稱給餉暫
借銀充庫令掾吏持券遍貸富民實盡乾沒無償及歸裝
橐充盈田園甲第炫耀一時一日造石坊賀者填門方出
送客坊石墮下壓死

가경○년○간○의○군○수○소○외○과○경○향○고○적○은○저○죄○잇○쇠○박○셔○
을○침○노○은○시○속○여○니○로○디○상○스○의○점○고○맛○기○로○잠○간○빅○셔○
의○금○은○은○빈○어○고○를○치○오○리○라○
만들어두루부민의저물을꾸어드리니기실은스스로가지미라
밋도라갈식나○다○이○가○득○향○고○전○원○과○죄○학○이○일○쇄○의○화○자
하더라일○은○돈○은○드○드○마○문○의○차○면○은○만○들○엇○디○니○맛○초○아
손을보너노라문의나올시차면돌이엎더죄인○
죽으니라

張寶



張寶知成都有華陽李尉妻美貌擅名蜀中寶欲私之徧
託尼姑奶子密諭此意久之妻亦有心而李尉適以賍敗
寶因劾奏送獄治罪竄嶺外死於路寶厚賂尉母強而娶
之歡樂不捨無何婦病恍惚見李尉在傍未幾死寶亦得
病夢婦告曰妾感公恩不敢不報尉已訴於上帝旦夕取
公若浚居未必得優苟或輕出必為所執寶覺而誌之一
日暮坐遙見堂下竹間有一紅袖招之意謂尉妻偶忘其
告疾趨急赴乃尉也毆寶罵曰你這賊子不以紅袖招搖
汝肯來乎良久口鼻出血倒地而死

장보라 하느니 사름이 성도의 자서 되엿더니 그부녀 화양 현공을
현의니 모의 취아름다운 스식이 추중의 천명하느니라
장외스통코저 하느니 여드르니 고와미과를 시겨가 만이 뜻으로 갈

너니이의날이오리나라의체도함음의허락함였더니
마초아니의적은죄의범함여거늘죄의함여조정의알외
고하오기죄함여멀니극향보너니가근가길의처죽은지
라장외이의후함회되로커니의의어미를달니모위의취
르어기로취함여주야로즐기더니오리지아니함여그제집
이함연이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히이거늘크게놀나이함여죽고장외도병이들어누엇
너니함의그제집이너니의너오의침비이공의은혜를감겨
함여아니고치못함너니의이의상제외하소언함여시
미오리지아니함여공을잡일지라만일김히숨어잇스
면화를면함너니와함여가벽야이나온즈필저잡힌비
되리라함여거늘죄보너니외여상히며음심음고나오지아니함

너니일일은화음은시의멀니보나당아리디슈폴스이의호르
연제집의부은옷스미외며손쳐부르거늘죄모음의혜오
되그제집이온가함여그너면말은싱각지아니함고급히
나와스가이분즈이의니의라장보르를잡아어즈러이치
며부지적왕너이도적놈아니부은옷스로부르지아니함
면네엇지나오리요함모모라가나장외이의정신이혼미
함여이모구비로죄를함너고저히것구러쳐죽으니라

李緒



李緒知永安軍時大盜方起緒恐及禍乃薦范釗代已於
 是釗知永安緒遂解任未幾盜破永安范釗舉家遇害又
 未幾李緒改調臨安路逢強盜亦舉家遇害

니셔라후는사람은영안군을드스림서이씨의년해보야흐
 르어즈러워그근척의큰도적이니러나느니라니세화의밋출가
 두러범형으로써조정의척거후여척을되신후게후니이의
 범형이영안의도임하고니셔니벼슬을갈아도라갓더니오
 리지아니후여도적의영안군과하니범형의일개모다
 히르만나더라그후오리지아니후여니세초벼슬을고
 최남안으로갈시길의척가도르만나일일이초호
 이필니마이니라

梁縉



孝直漢景帝時爲長安令志性清慎政聲遠聞所乘馬日
行五百里雍州刺史梁縉與帝連婚強索其馬不獲密搆
人誣直受贓下獄直使人告妻子曰刺史陰謀欲奪我馬
汝等幼弱未能伸雪我死可將紙筆置棺中以便奏白果
死獄中家人如所囑後旬日帝大會羣臣直於殿前上表
曰臣少忝宦途頗彰清慎不謂刺史梁縉心縱貪婪勢連
內戚欲臣所畜之馬加臣枉死之刑上訴皇天許臣雪冤
用敢以聞并梁縉不法二十一條粘狀尾景帝覽表訖忽
不見甚以爲異詔收梁縉下獄勘詰枉殺孝直及諸款事
事不虛詔將梁縉往孝直墓前斬而祭之追贈直尚書郎
時人爲之語曰莫言鬼無形杜伯射宣王莫言鬼無身孝
直訟生人

효직이든한 경제척사름이니 장안녕이 되여 성품과 청
서 무르고 삼가니 친척이 원근의 들니 더라 다는 말이 이치 일
의 오빙니를 현양는 지라 용주자스냥의는 회오계의 인친
으로 위권을 유세하여 그말을 구취응하가 엿지 못호고
만이 죄를 어러어 효직을 모함하여 옥의노리우니 효직이
사름을 부러그쳐스의 계고하여 알자스냥의니 말을 아스려
중여가만호외로날을 죽이려하니 더히어리고 약중여가
히쳐리 전치 못호는 지라니 죽은후 관속의 지필은 너흐라니
맛당이 상소중여 설원하리라. 호고인호여 옥중의 쇠죽으
니 짐사름이그말치로호엿더라. 그후수일의 상이크게 준신은
조회호실시 효직이 전압히이쳐 표르온니 기포의 알신이
어려서 환노의 모침호여 죽못 청신호은인호음이 잇스더니
용주자스냥의 라심이 무엄호며 친의 형세를 밋고신
의 말을 아스려호여 이미히신을 죽엿기로 회련의 할와신
의 설원호음은 회호실시 감히 배알와며 점호여 냥의의 불방법
호죄이심인 조를 천년호여 알와니 이라호여 거를 상이 표
를 보실시 효직이 흘연간디 어는 지라 상이크게 귀이히어
이샤 냥의를 거두어 하우호고 힐문호시니 스이헛디지아
닌지라도 호샤 냥의를 가져 효직의 무덤 앞의 나아가고
머리 버혀리 체호고 효직으로 상셔랑을 추증호시니 이쳐사
름이 말하호여 만우디 귀신의 형용이 어바다 말호지 말나 두
빅이 설왕을 밋아시며 귀신의 몸이 어바다 말호지 말나
효직이 산사름을 송스호엿다호더라

許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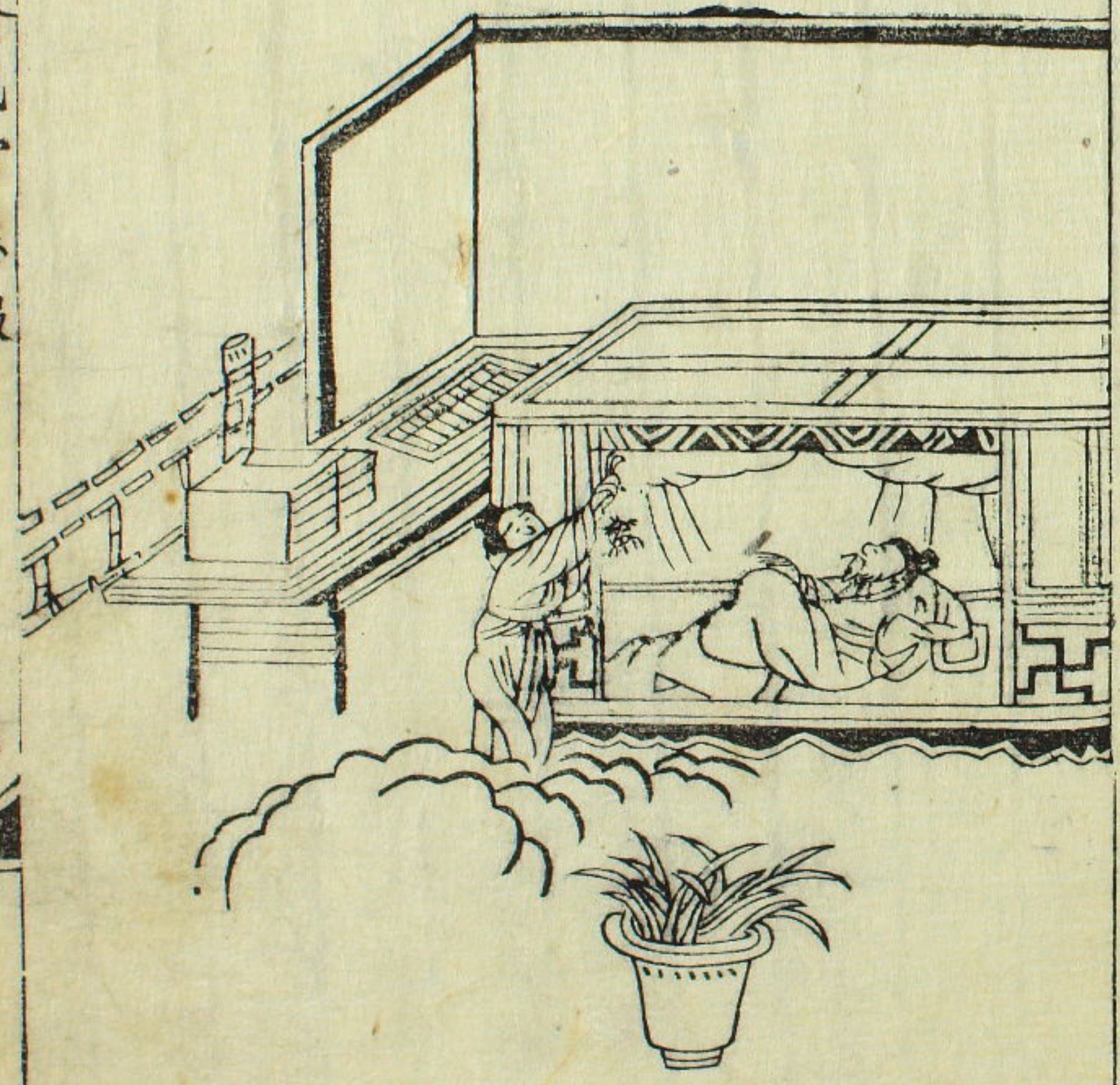


許某於順治四年從大兵入廣遂授一令是時聲教初敷
 新附之民在城中者皆遵新制而山鄉村民多不剃髮適
 兵校擒解長髮百姓十四名其實皆愚民非強盜也許某
 卽以盜申解帥府并殺之殺之時當正午刻是日也許家
 眷來署未至縣治百餘里乃遇真盜罄掠行李亦殺男女
 十四口恰在午時許某口述其事於諸生黃建等彼時黃
 建亦爲廣東學官

히외순치수년의디변으로조초과동하히드러가더니인하
 흥현녕을흥여터라이셔의왕해취음으로흥흥시로보
 좃는빅성이성중의잇는조는셔법을조초시되산곡사름
 과향촌빅성은오히려머리큰악지아나흥여터나맛츄문
 시잇셔머리악지아나흥빅성십스명을잡아오나이
 는

다닐모르든우민이오나라반호도적이나나일회
 의력으로도적이라하여슈부의보너여모다죽이니이
 는정히오시되엇더라이날허모의니형이고을노을서
 고을의못밧음을빅여리즈음하여홀연이강도를만나
 형장을다아이고남녀십스인이적슈의죽으니그
 또호오시라정히십스명빅형죽이던그날오시와
 날은시오인명슈도또호가지라허되그날은서
 건등드러말하니기시황건이광동호관으로이
 지히적하니라

狄知縣



溧陽狄某任雲南定遠縣令縣有富翁死其妻擁資數萬
叔欲爭之訟於縣密囑曰卽判斷以半爲酬狄拘其嫂酷
刑拷訊至鑊釘釘足熱水澆乳悉奪所有四萬金狄得二
萬嫂費恨以死狄歸一日晝寢忽見婦手持小團魚掛床
上未幾遍體生疽如團魚狀以手按之四足俱動痛徹骨
髓晝夜呼號踰年死五子七孫俱生此疽而歿餘一孫無
立錐之地矣

늘양사름적모논은남정원현녕이되엇실석그고을의부
민이이서더니이죽고그체홀노잇쳐누만금을진혀는지라
그부민의아우잇쳐형슈의지물을썩아스라하야관가의
소스홀리가만이적모의게말을드려닐오라크지물은
아손후분반하여드리라하니적되크게갓과부근은

잠아가두고독후는희벌노죄주어우를식최모슬바른의박
아음죽이지못하게하고물을느려젓스슴의부으니그츄
후후음이불인견이라이의그가산스만금을몰슈이달
취하여적되그반을취하엿더라일노인하여그과부한
을품어죽으니라그우적되벼슬을갈고도라와이르
은낫잠자더니홀연그과부손의등구러는물고기르
가적적모의상우희걸거늘썩여고이히너엿더니오
리지아니하여적되일신의그고기모양으로종과나
아래프기글슈의스못노지라슈년을호동하다가죽고
섯아플과일품손지또하은그조괴로이어죽고다만은손
지잇쳐누리키결하니라

鄭清臣



宋鄭清臣爲槐里令虐使小民任滿婦民遮道唾罵清臣
以部民侮長官奏聞眞宗曰爲政在得民心民心如此爾
政可知遂坐貶

송나라 덕영청의 신이 괴리현을 통치할 때 실서벽성을 잔포하여
하청이 심히 만학더니 밋과 만학여도라 올서 모든 벽성이 길
을 막고 춤바하하지으며 욕을 마지아니하니 최은신이 부끄
리고 부히녀 제고을 벽성이 관장 업슈이 너이는 죄로써
주문하니 진종이 큰이 사되 치민은 죄스는 죄일 벽성이
이인심을 어를 거시어 들이 깨민심이 조흐니 네 청은
를 가히 알니로다 응시고 드여 됴음의 너치시니라

黃同知



元廣州黃同知夫婦寢病異榻其妻夢吏執公文引數卒持鎖揭帳如擒捕狀曰此非也遂過對榻曰是也夫婦俱驚覺夫曰我必死我招安時多殺無辜今皆至矣逾日死

원나라랑 주황동지의부벽음의비들어각상인의누엇
 더니그최의음의흔아진이공문을가지고두어군스로더
 부러갈과슈조그모우논즈음의외근가지고장음드르고
 드러오니맛치사름잡으려흔모양이라이우이보든가
 니르되이논그사름이아니라흔고죄원상으로가며니르되이
 진짓그사름이로라흔겨늘늘나서여그지아비르되흔여움
 말을닐은식함동지큰오직니반드시죽으리로다니쳐
 일초안흔제무죄흔사름을만히죽여스시므로이제모
 다니르려다흔더니그이른날죽으니라

王通判



浙省廣濟軍歲差殷實戶充役庫子以司出納有一家侵
 用官錙無可為償府判王某素號殘忍乃拘其妻妾子女
 於官不足抵完遂以小舟載入西湖令陪客以貲納官鮮
 于樞傷之作湖邊曲曰湖邊蕩槳誰家女綠慘紅愁羞不
 語低徊忍淚傍郎船貪得纏頭張歌舞玉壺美酒不須憂
 魚腹熊蹯棄如土陽臺夢短匆匆去鴛鴦生寒愁日暮安
 得義士擲千金遂令桑濮歌行露後府判子孫亦世世為
 娼矣

절강성광제군의히마다가음열고착실호비성을갈
 히여창고스르른시거전지를출남호게호티니이저호비
 성이잇저창고스의선힌지라관전을출남호미저여이
 범용호니그쉬이의만코가산이당진호여갑호를길이어

은지라 그고을은 관왕외 본디 성품이 잔인함 여형식스
못각박함더니 그벽성의 취침과 썰은 잠아 관가의
속공음엿시되 오히려 그감시부조함지라 이의적은 비
로써 그너스름 실어 쇠호의 보너 여익을 격고 돈을 버으러
관가의 드리게 함니 그츠음후기 음은 니로 괴로기 못함너
라 그후통판의 스손이 썰음되기로 창녀되니라

